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행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행인 | 박형규 발행일 | 2003년 10월 15일

주소 | (100-733)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43번지 신동아화재빌딩 2·3층

전화 | 02·3709·7500 팩스 | 02·3709·7516 | <http://www.kdemocracy.or.kr>

유통 | 도서출판 오름 전화 | 585·9122~3 팩스 | 584·7952

글 | 김기선 디자인 | AND



## 약력

1949. 7. 8	전북 임실군 지사면 출생
1967. 12	안양고 2년 중퇴
1968. 8. 15	(주)한영섬유 입사
1970. 12. 23	(주)한영섬유 노동조합 가입
1970. 12. 31	공장에서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폐업한다는 말에 자진 사퇴
1971. 1. 4	(주)한영섬유 재입사
1971. 3. 18	노조를 파괴하려는 구사대에게 피습
1971. 5. 16	사망
1971. 6. 25	영결식

## 발간사

칠효의 어둠을 가르며 시대를 밝힌 불꽃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주의를 외쳤던 열사들, 폭압에 스러져간 희생자들...

우리는 그들에게서 억압을 뚫고 솟아오르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힘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란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떨쳐 일어나 외치며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불꽃으로 부활한 이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를 향한 씩 없는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이며 자랑스러운 자부심입니다. 때문에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몸 바친 의인과 열사들의 값진 발자취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를 위해 수많은 민주주의 전령들의 삶과 투쟁과 죽음을 온전히 복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지속될 '시대의 불꽃' 발간 사업은 기억속에서 다시 살아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자산, 그리고 열사들의 삶이 미래를 여는 힘으로 되살아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2002.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 형규

## 추천사

인명진(갈릴리교회 담임 목사)

김진수!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이름 같은데 생소하다.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이니까,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얼마 전에 그가 묻혀 있는 모란공원에 가 보았더니 그의 묘 단장은 오랜 세월이 허물어져 내렸고, 무덤 곁에 세워진 묘비만이 '김진수' 그 이름을 외롭게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김진수, 그는 한국노동운동사의 큰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다.

김진수는 지독스런 가난 때문에 1966년, 17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죽음을 당하는 1971년까지 노동자의 길을 걸었다. 그 당시의 노동자들은 수출 주도형 산업화의 이면과 경제 기적이라는 허울 아래 최소한의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불온시하며 침묵만 강요했고, 오직 어용노동조합만이 권력의 비호 하에 노동자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누적된 고통과 분노는 1970년의 전태일 분신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맞게 된다.

이제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더 체계적이고 집 단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어용노조에게 내맡긴 자신의 권리들을 되찾기 위하여 민주노조 결성을 시도하게 된다. 이 와중에 김진수는 민주노조 건설에 우호적이었다는 이유만 으로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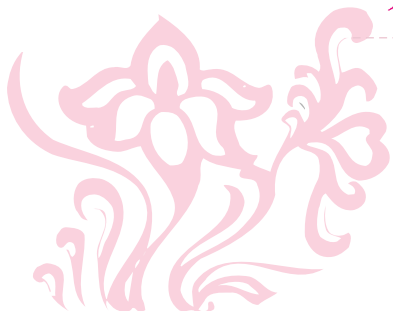
전태일이 당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쳤다면, 김진수는 노동자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인지 를 예고해 주며 험난한 노동조합운동의 초석이 된 사람이다. 한마디 로 그는 한국노동조합운동사의 순교자 중의 하나이다

김진수, 그는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니 고 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최초로 학생, 종교인 등이 노동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는 점이다.

전태일의 비극적 죽음은 노동투쟁과 민주화투쟁 간에 조심스런 연 대를 모색하는 계기를 부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진수 사건은 구 체적으로 연대한 첫 번째 사례로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며, 그 이후의 노동문제 해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김진수 사

건을 통해 노동문제를 단순히 노동자와 사용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 회 전체와 관련이 있는 사회문제화 하는 전통이 생겨났다. 또한 당시 사건 해결을 위해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후에 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계속 해와, 건 전한 지도력을 키워낸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의 그늘에 가린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럽도록 느린 내부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 서 얼마나 수많은 피눈물이 뿌려졌는지를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 차례

5	약력
6	발간사
7	추천사
8	아버지의 흰옷
29	서울로, 서울로
48	손가락과 함께 날아간 꿈
71	가난한 마음에도 봄은 오고
85	전태일, 부인하고 싶은 나의 얼굴
101	회오리 바람
121	작업장의 비명소리
138	투쟁의 시작

## 부록

160	장례식
178	구사대 진술서
182	공장장 각서



아버지의 흰옷

김진수는 1949년 7월 8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다. 병풍을 펼친 듯 산과 산이 첩첩 둘러 있는 임실은 예부터 수려한 산세로 이름난 고장이었다. 노령산맥의 한 봉우리인 장수군의 팔공산을 중심으로 산줄기는 크게 세 갈래로 뻗었는데, 한 줄기는 서쪽으로 뻗어서 임실읍에 두만산을, 강진면에 백련산을, 덕치면에 회문산을 만들었고, 또 한 줄기는 북쪽으로 뻗어서 진안군에 마이산을 만들었고, 나머지 한 줄기는 서북쪽으로 뻗어 임실군 성수면에 성수산을, 지사면에 주봉을 만들어 놓았다.

김진수가 나고 자란 마을은 주봉의 가파른 줄기가 뻗어 있는 지사면 계산리 현계 부락이었다. 계산리는 장수 들어가는 길목에 놓인 궁벽한 마을로, 특히 그의 생가가 있는 현계 부락은 경운기 한 대도 수월하게 지나지 못할 심심산골이었다. 가파른 산세로 인해 임실읍보다는 남원을 생활권에 더 밀착돼 있는 곳이었다. 이곳 사람들이 즐겨 '살 제 남원, 죽어 임실'이라는 말을 입에 담았던 것은 살아서는 물산이 풍부한 남원에서 즐겁게 지내고 죽어서는 풍광이 빼어난 임실에 묻히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것은 임실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다.

굽이굽이 산줄기가 뻗어 있으니 주민의 대다수가 농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경지는 임실 전체 면적의 20%가 채 못 되었다. 그나마 수확량도 보잘 것이 없어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고추, 담배, 참



깨, 감 같은 것들을 재배하여 생계에 보태곤 했다.

그 사정은 김진수의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논 몇 마지기에서 나오는 소출로는 그럭저럭 연명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자식들 교육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진수의 누나들과 여동생이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출가하거나<sup>1)</sup>,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찌감치 타지로 나가야 했던<sup>2)</sup>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당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걸레질만 할 줄 알면 타지어나가 식모살이를 하거나 공장에 취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김진수의 아버지 김종록은 아들 진수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진수는 그냥 아들이 아니었다. 아들 귀한 집안의 삼대 독자였다. 큰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떴고, 진수 큰 누나 밑으로 낳은 아들을 병으로 놓쳐 버린 탓에, 진수 부자는 독자(獨子) 아닌 독자가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어린 진수만큼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착실히 가르쳐 가세를 일으킬 재목으로 다듬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아버지를 닮은 진수는 미려한 외모와 해맑은 웃음을 간직한 미소년이었다. 시골아이답지 않게 조숙했고, 과묵했으며, 몸가짐이 경망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기대를 담백 받고 자랐지만, 결코 응석받이로 큰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곳에 있으나 제 할 몫을 알았고, 예의범절이 반듯했으며, 품행도 단정했다.

진수의 국민학교 입학울 서너 해 앞두고, 아버지가 치던 돼지가 새

끼를 낳았다. 그때만 해도 가난한 농가에서 소는 꿈도 꾸지 못할 큰 재산이었으니, '돼지꿈을 꿴다'는 말이 세간에서 최고의 길몽으로 여겨질 만도 했다. 귀여운 돼지 새끼들은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 살이 토실토실하게 췌다. 아버지는 그 중 실한 놈으로 예닐곱 마리를 골라 이웃의 작은 야산과 바꾸었다. 아버지에게 이천 평이 채 안 되는 그 작은 동산은 내일의 꿈이요 아들 진수의 미래였다.

아버지는 농사일 외에도 '손기'<sup>3)</sup>가 좋기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특히 짚일은 근동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솜씨가 날랐다. 바쁜 농사철에도 부지런히 손을 놀려 먹서리며 멍석이며 갖가지 물건을 담아두는 망태까지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해마다 추수가 끝난 뒤 지붕 이을 철이 돌아오면 여기저기서 앞 다튀 불러대는 통에 집에 편히 앉아 담배 한 대 필 짬도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바로 그 재주가 진수 가족의 운명에 먹구름을 드리워 놓을 줄은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진수가 지사국민학교<sup>4)</sup>에 입학한 1956년 9월 말이었다. 가을건이가 끝난 빈들에는 서리가 얇게 깔려 있었다. 외진 산간 마을이라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심했고, 서리도 유난스레 빨리 내렸다. 이른 조반을 마친 아버지는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그 날은 이웃집 강씨네 지붕을 잇기로 한 날이었다. 그 집에서는 추수가 끝나자마자 벌써 며칠째 지붕 잇는 일을 도와달라며 바짝 아버지를 졸라뒀던 것이다.

그 날 오후, 수업을 마친 진수가 학교를 빠져나오는데 누군가 뒤에

서 숨넘어가는 소리로 진수를 불렀다.

“진수, 너 귀 먹었냐!”

윗집에 사는 친구 유택이었다. 유택이는 숨이 턱에 받치는지 진수의 뒷덜미를 붙잡고 서서 허연 입김을 승승 뿜어내고 있었다. 진수는 빙긋이 웃으며 유택이 숨을 고르기를 기다렸다. 유택이네와는 진수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위아랫집에 살면서,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동기간처럼 허물없이 지내 온 사이였다.

“진수야, 아랫말 강씨 아저씨네 지붕 잇는다는디 구경 안 갈래?”

장난기 가득한 유택의 눈에서는 언제나 반들반들 윤이 났다. 며칠째 감기바람이라 코밑을 흠쳐 대는 유택의 잠바 소매가 거뭇게 젖어 있었다.

‘어른들 일하는 데 가서 수선피우는 거 아버지가 안 좋아하실 텐데…….’

진수는 난처한 얼굴로 커다란 눈을 껌벅였다.

“널 숙제가 많은데.”

“숙제는 너만 있냐? 건 이따가 밤에 하고, 응? 전도 부치고 닭도 잡는다더라.”

유택은 전 부스리기 얻어 먹을 생각에 군입을 다시는 일방, 제멋대로 아랫말 쪽으로 길을 잡으며 진수를 이끌었다. 이윽고 두 친구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책보를 메고 학교 가는 동네 형들을 부러워하던 이들은 올봄 가까운 지사국민학

교에 나란히 입학했다. 둘째 누나의 손을 꼭 잡고 오리 남짓한 산길을 걸어 처음으로 학교에 가던 날, 파리처럼 부푼 진수의 마음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기쁨에 겨웠다. 읍내에 나갔다 우연히 아들의 담임선생님을 만난 아버지는 진수가 학교 공부를 곧잘 한다는 칭찬을 듣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랐다.

아랫말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산길에 들어섰을 때 별안간 유택이 소리쳤다.

“찌그 느그 아버지 아니냐!”

“어디, 어디?”

유택의 손끝은 아랫말 강씨네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 장정 서넛이 강씨네 집 안마당을 가로지르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진수 아버지로 보이는 한 사내가 벽에 기대놓은 사다리 중간에 서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뭐라 큰소리로 지시를 하고 있었다. 손기 날랜 진수 아버지 덕분에, 강씨네 집은 벌써 낡은 이엉을 벗고 싹뚱한 새 이엉을 이고 있었다. 이제 벗짚을 틀어 지네처럼 만든 용마름을 용마루에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그 위를 새끼로 단단히 엮어매는 고삐는 작업만 남은 듯 보였다.

“아아, 느그 아버지 되게 멋있다!”

손가락을 빨며 지붕 잇는 광경을 지켜보던 유택의 탄성에 진수는 으쓱하는 기분이었다. 높은 데 버티고 서서 상일꾼들을 지휘하는 아버지가 은근히 자랑스러웠다.

“재미나겠다. 얼릉, 얼릉 가자!”

마음이 급한 유택은 뿔 듯한 걸음으로 성큼성큼 앞서 가기 시작했다. 진수가 아랫말에 접어들었을 때, 진수 아버지는 다른 한 사람과 강씨네 지붕에 우뚝 올라섰다. 용마루에는 이미 용마름을 올렸으니, 이제 고삿 매기만 하면 일은 끝날 터였다. 아낙네들이 바쁘게 돌아치는 부엌에서는 전을 부치는지 고소한 기름내가 풍겨 나왔다. 시장기가 돈 진수는 코를 별름거리면서, 지붕도 잘 보이고 아버지의 눈에 잘 안 뜨일 만한 위치에서 발을 멈췄다. 아버지가 길게 끈 새끼 한 끝을 건너편 사람에게 던지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이! 새끼 꼬터리를 서까래에다가 단단히 잡아 매게!”

“그러, 인자 잡아당기네!”

두 사람이 힘을 쓰는가 싶던, 바로 그때였다.

“어어어…….”

두 사람이 힘을 쓰는 박자가 어긋나면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은 아버지의 몸이 기우뚱했다.

“아악!”

‘아부지……!’

진수는 아버지의 흰옷이 꿈결처럼 히득 허공으로 떠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이어 뭔가 무거운 것이 “쿵!” 하고 땅을 들이받는 둔중한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이 내려앉은 듯 아랫말에는 일순 무서운 정적이 감돌았다. 잠시 후 갑자기



주변이 소란해졌다.

“아이고, 종록이!”

“진수 아버지야!”

“야야, 진수야! 돌멩이처럼 그라고 섰지만 말고 느그 어매 좀 불러 오니라 잉!”

“아서, 아서! 즈그 아버지 떨어지는 걸 봤으니 어린 것이 얼마나 놀랐겠어.”

“우선에 읍내 병원으로 옮기드라고.”

다급한 발소리, 혀 차는 소리, 무언가를 실어 내 가는 소리, 아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나가고 동네 개들이 쾅쾅 짖어대는 소리 속에서, 진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함께 온 유택이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진수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가 없었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고샅길 사이로 검푸른 저녁이내가 내려앉았다. 마을에는 하나 둘 저녁연기가 피어오르고, 소슬한 바람이 불었다. 언제 오줌을 썼는지 아랫도리가 선득선득했다.

아버지는 그 해를 넘기지 못했다. 음력 구월 이십 일께 사고가 나서, 동짓달 초순에 세상을 떴으니 근 두 달여를 앓은 것이었다. 장 파 열이라 했다. 중환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읍내 의원에선 고개를 흔들며 환자를 데려가라 했다. 큰 병원으로 옮기든지 집으로 데려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논 밭 마지기, 밭 몇 피기로 연명하는 군색한 촌살

림에 무슨 수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닐 것인가. 이 약, 저 약, 좋다는 약마다 구해 들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는 굴신을 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만 있다가 속절없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강씨네서는 진수네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보리쌀 한 뒷박이라도 들고 얼굴이나 내밀었으면 가족들 마음에 이렇듯 검붉은 응어리가 맺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억울했다. 서러웠다. 잇속 밝은 사람들이 같으면 소송이라도 해서 치료비며 위자료를 받아낼 생각이라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음전한 촌부에 불과했던 어머니는 다만 가슴을 치고 복장을 두드리며 하늘을 원망할 따름이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죄 없이 가난한 집에서 왜 이런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도와줄 사람도, 나서 줄 사람도 없었다. 집안이라도 변화했다면, 버젓이 장성한 아들자식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일방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허랑하게 세상을 등진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 상복을 입은 어린 진수는 문상 온 조객들에게 의젓하게 인사를 차렸다. 삼베옷에 감싸인 어린 상주가 소리 없이 흐느끼고, 곡성도 잇은 채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 집안의 비극적인 운명을 말해 주는 듯했다. 그 처연한 광경에, 사람들은 돌아서서 눈시울을 붉혔다.

“시상에, 저이쁜 것을 두고 원통해서 어찌 눈을 감았으니까 잉!”

아버지는 돼지새끼와 맞바꾼 마을 야산의 양지 바른 곳에 묻혔다.

당신 생전에 아들 학비라며,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해하던 바로 그 땅이었다. 졸지에 과부가 된 어머니 윤길순은 오로지 아들 진수 하나만을 보며 살았다. 어머니에게 진수는 아들이자 남편이었고, 매일의 희망이었다. 딸자식이 셋이었으나 시집 간 큰딸 정자는 출가외인이었고, 둘째 현자와 막내 현숙은 어머니의 의지처가 되기엔 너무 어린 딸들이었다.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집이란 자신이 깃들일 정처를 찾는 동안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한 것이 아니던가.

어머니는 밤마다 아랫목에 곤히 잠든 진수를 바라보며 애써 눈물을 삼켰고, 복받치는 마음을 다스렸다.

‘집안에 남자라고는 씨가 마르고, 저 어린것 하나 남았구나……. 허지만 진수 아버지! 마음 폭 놓으시오. 내 이 머리칼로 짚신을 삼아서라도, 우리 아들 진수만은 반드시 고등, 대학까지 공부시켜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게 할 거요.’

어머니는 손톱이 닳도록 밭을 일켰고, 온종일 논바닥에 파묻혀 상머슴처럼 일했다. 아비 없는 자식들 입성은 남루해도 보리밥이나마 배불리 먹이고 싶었다. 어머니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감수했다. 농사일 틈틈이 나물을 캐러 산으로 들로 나갔고, 푼돈이나마 만져 보려고 고추며 단감이며 밭에서 나는 각종 작물들을 거둬 시장에 내다팔았다. 그러나 기둥을 잃고 여자 혼자 일궈가는 생활이 만만할 리가 없었다. 진수네 형편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점점 쭈그러들었다.

당시 농가의 소득이란 쌀을 판 돈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농민들은 콩보리를 먹고 될수록 많은 쌀을 팔아서 생계에 보탬을 주었다. 농민에게는 쌀값이 곧 임금이었던 것이다. 농민의 소득을 올리려면 쌀값 인상 밖에 없었는데, 도시로 몰려드는 썩은 노동력에 의존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던 박정희 정권은 살인적인 ‘저곡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해마다 보릿고개는 더욱 극심해졌다. 겨우내 자식처럼 아끼고 보듬던 식량은 마침내 바닥이 나고 말았다. 당장 먹을 저녁거리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다. 모두 비슷한 처지다 보니 양식을 꾸어올 데도 없고, 꾸어 줄 사람도 없었다. 보리 추수가 돼야 끼더라도 때울 수 있는데, 그때까지 견디지 못하면 굶어죽을 도리밖에 없었다. 보릿고개가 닥치면 아사(餓死)한 절량(絶糧) 농민에 대한 신문기사가 전국 여기저기서 등장하곤 했던 가슴 아픈 시절이었다.

별 수 없이 채 여물지도 않은 보리이삭을 태워 가루로 만들고, 초근목피(草根木皮, 풀뿌리와 나무껍질)를 넣어 죽을 쑤어 먹었다. 이렇게 먹으면 변(便)이 굳어져서, 배설할 때마다 왕왕 항문이 찢어졌다. 우리 조상들이 가장 비참한 가난을 가리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했던 것은 단지 문학적 과장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어머니에겐 진수가 유일한 자랑이자 의지처였다. 아버지를 눈앞에서 잃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 내고도 진수는 구김살 없이 자랐다. 표정도 온화했고, 입가에는 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함께 어울리는 친

구들도 많았고, 관계도 원만했다. 빼어난 인물로 보나, 흐트러짐 없는 찬찬한 성격으로 보나 진수는 클수록 또렷하게 아버지를 닮아 갔다. 학교 공부도 썩 잘했다. 그것이 또 어머니를 흐뭇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해맑은 소년을 유심히 관찰한 사람이라면 맑고 푸른 눈 자위에 희미하게 구슬픈 기색이 떠도는 걸 눈치 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의 속그늘까지 헤아리기엔 어머니는 너무 바빴고, 하루하루가 고달팠다.

한 가지, 어머니가 진수에 대해 걱정하는 게 있다면 지나치게 말이 없다는 점이였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제 할 일만 할 뿐, 누구에게든 필요 이상의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말치레 없는 어머니의 성격을 탁한 것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웬지 아비 없는 자식에게 드리우는 그늘쯤으로 여겨지는 것이였다.

어느 해 가을이던가. 진수는 마루에서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뒤란에서는 바람에 스친 뗏이파리들이 몸 부비는 소리가 서걱서걱 들려오고,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린 꽃감 껌미가 차가운 공기를 품은 새파란 하늘 아래 반투명한 빨간 속살을 드러내던 날이였다.

마루 끝에 걸터앉아 저녁 죽거리로 쓸 나물을 손질하던 어머니는 아들 쪽을 힐끗 건너다보았다. 진수는 책장을 펼쳐놓은 채 두 손을 웅그려 가름한 턱에 대고 앉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다. 쌍꺼풀진 커다란 눈망울이 조는 듯 반쯤 감겨 있고, 길고 검은 속눈썹은 성냥 개비 몇 개는 죽히 올릴 수 있을 것처럼 끝이 둥글게 휘어 올라가 있

었다. 어머니는 아들 옆에 바짝 다가앉아 말을 붙였다.

“애기 좀 해 봐.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니?”

책장을 덮은 진수는 웃음 띤 얼굴로 어머니 쪽으로 돌아앉았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식이 하루 종일 뭐하고 돌아다녔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험 말어 없어?”

“뭐, 별 게 있어야지요. 학교에서 공부했고, 걸어서 왔고 그렇지요.”

“아니 그럼 유택이는 왜 그렇게 말을 잘한다니? 집에 오면 그냥 지엄마한테 앵겨서 이런 말 저런 말, 동네 말, 친구들 말 다 허드라.”

“그거야 다 성격 나름이지요.”

진수 말마따나 윗집의 유택이는 너글너글하고 활달한 성격이였다. 활달하다 못해 때로 짓곳은 장난도 많이 쳐서 동네 어른들에게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과 살가운 정을 나누는 유택이의 어머니가 부러운 모양이였다. 어머니의 얼굴에 서운한 표정이 떠오르자, 진수는 슬그머니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사람이 말이 너무 많다 보면 정작 쓸 말은 적은 법이래요.”

그런 진수 앞에서는 어머니도 그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진수는 말을 아끼는 대신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다. 돌아가신 아버지 뭇의 일을 십 분지 일이라도 해 내려는 심산이었던가. 아침에 눈을

뜨면 집에서 기르는 돼지와 닭들의 먹이를 먼저 살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망태를 짚어지고 소나무를 굽으러 갔다. 그러다 인심 사나운 산 임자에게 쫓겨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야산의 그늘진 바위에서 이끼를 거뒀 오거나 풀을 베다 말려서라도 방구들의 찬기를 몰아내곤 했다. 여름이면 곡괭이로 잔디를 캐다가 흙먼지를 탁탁 털어 말려서 모깃불을 피웠다.

웃차림과 몸가짐이 반듯해서 자고 일어나도 머리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으니, 진수의 그런 성미를 일컬어 훗날 누나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찬찬해서 알미울 정도'라 했고, 어머니는 '애늬은이 같다'고 했으며, 네 살 아래 여동생은 '아버지보다 더 어려운' 존재였다고 회고했다.



서울로, 서울로

1962년 3월, 김진수는 임실군 둔남면<sup>5)</sup>에 있는 오수중학교에 입학했다. 집에서 오수중학교까지는 십리가 조금 못 되는 산길이었다. 5일마다 장이 열리는 오수리 의견비 앞을 지날 때마다 진수는 이 고을 이름에 ‘개 오(獒)’ 자와 ‘나무 수(樹)’ 자를 붙인 뜻을 되새겨 보곤 했다.

오래전부터 오수(獒樹)에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견(義犬)의 전설이 전해 왔다. 지사면 지시랑이라는 곳에 살았던 김개인(金蓋仁)이란 이는 개를 자식처럼 사랑한 나머지 나들이를 할 때는 항상 데리고 다녔다. 어느 날 오수장에 갔던 그가 술에 취해 귀가 도중 풀밭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산불이 일어나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다. 그러자 주인을 따라간 개는 가까운 개울로 달려가서 온몸으로 물을 적셔다가 불길에 주인 곁으로 번지지 못하게 하고서는 지쳐서 끝내 죽고 말았다.

잠에서 깨어난 주인은 사랑하는 개가 목숨을 바쳐 자기를 구해 준 사실을 깨닫고 슬피 울며 양지바른 곳에 개의 시체를 묻고, 무덤 앞에 지팡이를 꽂아 주었다.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아름드리나무로 자라난 것이 지금의 고목이 되었다고 한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은혜를 아는 개가 더 낫다’ 된가. 의견비 앞을 지날 때마다 진수의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향해 달렸다. ‘지극하다’는 말의 참뜻을 진수는 어머니로 하여 깨닫곤 했다. 진수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은 참으로 지극했다. 어머니는 진



수 중학교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낮에는 행상을 꾸러 머리에 이고 온갖 데를 다니며 물건을 팔아 학비를 냈고, 밤이면 등불을 켜들고 낱새는 줄 모르고 밀린 집안일과 들일을 했다.

당신을 위해서는 거친 보리밥 한 그릇도 아까워 벌벌 떨었다. 밀기울로 밀짚게 죽을 쑤어 먹고, 쑥이나 무, 감자 따위를 밥에 섞어 허기를 때웠으며, 상추에다 된장만을 써서 빈 배를 채우곤 했다. 그것은 추수철에도 마찬가지였다. 해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동생 키보다 더 큰 뒤주에 곡식이 그득 채워지곤 했지만, 어머니는 행여 곡식이 떨어져 쌀빔을 내거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공부 못 시킬까 두려워 마냥 당신의 허리띠만 졸라맸다.

행상을 다닐 적에도 어머니는 차비가 아까워 오르락내리락 고개도 가파른 산길을 기어이 걸어 다녔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집에 돌아올 때는 차비와 점심값을 아껴 모은 돈으로 공책이나 연필을 사오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여겼다. 진수가 중학교에 입학할 적에는 오동나무로 짠 앉은뱅이책상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그런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유난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여름이면 당원 뿌린 토마토를 두레박에 넣어 차가운 우물물에 재워 두었다가 진수에게 먹였고, 임동설한에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공부하고 있을라치면 행여 아들이 졸세라 옆에서 흰 양말을 깎던 어머니는 살며시 일어나 뜰 안 늙은 감나무 가지에 엮어둔 바구니에서 살얼음 낀 새빨간 홍시를 꺼내 주곤 했다.



겨울이면 진수는 누이들을 젖히고 아랫목 차지를 해야 했다. 막내 현숙이 따뜻한 아랫목에 발을 뺨기라도 할 양이면, 서릿발 같은 어머니의 호령이 대번에 날아들었다.

“가시내가 어디 오빠 앞에서 발을 뺨냐!”

때로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이 부담스러웠지만, 묵묵히 따르는 시늉이라도 내야 했다. 그것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머니의 기도요 신앙이기 때문이었다.

중학교 3학년에 진급하자 진수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확실히 결정해야 할 시점이었던 것이다. 물론 아직도 어머니는 완강하게 진수의 고등학교 진학을 원했다. 물론 진수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고, 그때까지 단 한번도 자신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 촌에서 자식을 고등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수십 마지기 농사를 짓는 집에서도 중학교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 빈촌에서, 여자 혼잣몸으로 자식을 대학까지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어머니의 오기를 곱게 봐 넘기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건 일종의 시새움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는 가까운 일가붙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몇몇 어른들은 일부러 진수네 집을 찾아와서 훈계를 늘어놓고 가기도 했다.

“아니 형편도 어려운데 뭣허게 대학은 갈친다고 그러. 눈을 이삼십

두릅씩 하는 사람도 소학교 나와서 지게 지고 다니는데, 여자 혼자 무슨 수로 대학을 갈칠라고?”

“지 아버지 이렇게 된 마당에 자식만은 어떻든 대학까지 갈쳐야지 않겠어요?”

“쯔쯔……. 요즘 고등 대학 배운 놈들이 어른 공경혈 줄을 아는가, 지방이나 제대로 쓸 줄 아는 놈이 있는가? 다 소양없는 일이며. 괜히 자식놈 객지 보내서 헛바람 달이지 말고 서당이나 보내서 한문 공부나 착실히 갈쳐. 서당 공부만 잘해도 그까짓 놈의 대학 나온 것 못지 않게 지 앞가림 훌륭히 할 거여.”

진수의 진학 문제가 마을사람들의 입질에 오르내리고, 집안어른들과 입씨름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등진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새삼스레 오기가 뺨치기도 했다. 어머니는 착실히 공부하는 진수를 보며 마음을 다지곤 했다.

‘그래, 애비 없는 자식이라 우습다 이겨여! 오냐, 이 사람들아! 내가 어떻게 우리 진수를 갈치는가 보아라. 무슨 짓을 해서든 진수 저 녀석만은 반드시 대학 공부를 시키리라.’

하지만 정작 진수의 진학을 위협했던 건 지독스런 가난이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안간힘을 쓰건만 가장 없는 생활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팍팍해져 갔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둘째 누나 현자는 한 입이라도 털어 볼 셈으로 멀리 외삼촌댁이 있는 안양으로 갔다. 이제 계산리 초가삼간에 남은 식구라곤 어머니와 진수, 현숙 남매 세 사람뿐이

었다.

며칠 전엔 안양의 둘째 누나에게서 금성방직<sup>6)</sup>이라는 공장에 취직했다는 편지가 날아 왔다. 한 달 월급이 3천3백 원이라던가. 외삼촌네서 기식하던 둘째 누나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 했다. 기숙사에 있는 동료들은 기숙사비를 제하면 남는 게 없어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가볼 때문에 그대로 눌러앉는 공원이 태반이라 했다. 단돈 얼마씩이라도 둘째딸로부터 송금을 기대했던 어머니는 낙담하는 빛이 역력했다.

진학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 없던 진수가 어느 날 어머니 앞에 앉았다. 언제나 웃음기가 돌던 진수의 얼굴이 오늘따라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어머니는 지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 유택이도 중학교 졸업하고 서당 공부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친구 따라 너도 서당 공부 하겠다고? 고등학교는 어떡하고?”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한 일년 서당 다니다가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생각해 보려구요.”

형편이 나아지면 생각해 보겠다는 진수의 말은 사실상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었다. 의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부르짖었다.

“나는 싫다! 니 아버지 평생을 땅만 파다 가신 것도 억울한데, 너까지 이 촌구석에서 지게나 지게 하다니 될 말이나? 그까짓 고등학교, 가려고만 들면 눈을 팔아서라도 왜 못 가니.”

“어머니, 선배들 얘기가 고등학교 나온다고 취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검정고시도 있고, 진학 문제는 다 저 하기 나름이예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힘없이 말했다.

“배움이란 다 때가 있다는데, 나이 들고 머리 굳어 천석꾼 만석꾼이 되면 뭘 하니?”

“우리 식구도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내 현숙이도 있고, 둘째 누나 시집도 보내야죠.”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아아, 저 속에 영감이 들어앉아 있구나. 휘파람 불며 동네 계집아이나 쫓아다닐 나이에……. 가슴 먹먹한 슬픔이 밀려들었다. 그래 현자, 현숙이, 그것들도 불쌍하고 아까운 내 자식들이지. 우선 살자, 살아야겠다. 결국 어머니가 지고 말았다. 아 니 질 수밖에 없었다.

1965년 2월, 중학교를 졸업한 진수는 유택과 함께 서당에 다니며 한문 공부를 시작했다. 임실은 유교적 전통과 꼬장꼬장한 반골 기질이 살아 있는 고장이었다. 고을마다 옛 유생들이 학문을 닦고 토론을 하던 유서 깊은 향교나 서원들이 많았다. 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았을 때, 척왜(斥倭)의 기치를 높이 세우며 의병에 나섰다가 죽임을 당한 유생들도 적지 않았다.

진수가 서당을 다니던 시절에도 옛 유림의 후예들이 곳곳에서 서당을 열어, 한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진수가 다닌 안티의 서

당도 그런 곳 중의 하나였다. 진수는 열심히 명심보감을 배우고 사서삼경을 익히는 것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끓는 진학의 열망을 잠재우려 애썼다.

그 해 겨울, 사서삼경 상권을 막 떼었을 무렵, 안양 사는 외삼촌이 오랜만에 임실에 내려왔다. 당시 안양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던 외삼촌은 홀로 된 누이의 곤궁한 처지를 가슴 아파했다. 몇 해 전 둘째 누나 현자를 안양으로 불러들인 외삼촌은 내심 현자가 자리를 잡으면 누이와 남은 조카들까지 불러오게 할 생각이었다. 외삼촌 역시 자식들 키우며 하루 세 끼 밥 먹기도 빠듯한 처지라 물질적으로 도와줄 여력은 없었지만, 서울 근교에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세상은 너나할 것 없이 서울로, 서울로만 향하고 있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차관을 도입하여 공업 부분, 특히 경공업 부분을 우선 육성하고 그 성장 효과를 다른 산업으로 파급시키는 정책을 폈다. 공업화 중심의 경제 정책은 농민층을 급속히 몰락시켰다. 도시 임금 노동자들의 식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쌀을 팔아야만 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하여 곡물 가격은 시장 가격의 85%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농사로는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게 된 빈농들은 하나씩 들쭉 정든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도시로 밀

려 온 공장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에 완전하게 몸을 바친 산업노동력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누님,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그만 올라오쇼.”

“평생 농사만 짓고 산 사람이 서울 가서 뭐를 해먹고 산다니.”

“여기서 노력하는 거 반에 반만 서울에서 노력하면 살지 왜 못 살아. 누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있는데. 하다못해 집이라도 사서 세를 내놓고 세만 받아먹고도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돈으로 집을 사?”

“여기 논이고 밭이고 정리하면 설마 서울서 집 한 칸 장만 못하겠어요?”

어머니는 펄쩍 뛰었다.

“논밭을 팔다니, 그건 안 돼! 누이 매형이 어떻게 장만한 땅인데, 그걸 팔어? 그리고 논밭 싹 정리하고 떠나면 어느 놈이 누이 매형 묘소한 번 둘러 볼 줄 아냐?”

“그러면 여기서 천 년 만 년 살 거요? 진수 장래 생각을 좀 해 봐요. 요즘 세상에 서당 댕기며 공자 왈 맹자 왈이 웬 말이요? 애 고등학교 못 보낸 것이 원이라면서요? 백날 여기 있어 봤자 지게질밖에 더 하겠소? 서울서 직장 잡고 밤에 야간고등학교라도 다니는 게 백 번 낫지.”

“야간고등학교……?”

“아, 야간고등학교라도 댕겨서 자격을 만들어 봐야 훗날 지가 대학

에 가도 갈 거 아니요?”

어머니는 그 대목에서 주춤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다니는 학교가 있다는 생각은 해 보지 못했다. 이 멍충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집안에 남정네가 없는 게 한이었다. 그러나 땅을 팔다니, 그건 안 될 말이었다.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멀거니 먼 산을 바라고 앉은 누이의 망설임과 고민에 베지를 내듯, 외삼촌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두말 말고 올라오시오, 땅을 못 팔겠으면 셋방이라도 얻어서 살면 되는 일이고, 아, 내가 있고 현자가 있는데, 뭘 해먹고 살든 여기보다 못하겠소?”

그날 밤, 어머니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든 진수를 가르쳐야 한다는 외삼촌의 말은 하나도 그른 데가 없었다.

‘백날 여기 있어 봤자 지게질밖에 더 하겠소?’


외삼촌은 울적 화를 솟구는 순간에도 차마 매형 애기만은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동생이 차마 하지 못한 말을 무겁게 깨닫고 있었다. 이대로 임실에 눌러 산다는 것은 진수에게 아버지의 길을 되밧아 가라고 떠미는 것이나 진배없었다. 아버지의 길, 농민의 삶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이 나라에서 그것은 꺾데기만 남은 ‘농자천하지대본’을 지키는 길이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야 했던 남편의 말로를 떠올릴 때마다 어머니는 거칠어지는 호흡을 진정할 수 없었다. 그날, 지붕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은 남편의 손에는 가혹한 운명의 상징

처럼 지푸라기 몇 오리가 쥐어져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도 살아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길을 진수에게 건게 할 순 없었다.

마침내 어머니는 임실을 뜨기로 마음먹었다.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나니,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다. 큰댁에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으로 안양의 외삼촌을 통해 진수가 진학할 만한 고등학교를 알아보았다. 집과 논의 관리는 장수에 사는 큰딸에게 맡기기로 했다. 아직 콧물도 빠지지 않은 막내 현숙은 국민학교를 마칠 때까지 큰딸이 돌봐줄 터였다.

“나도 따라갈래! 엄마, 나도 따라갈 거야! 아아양…….”

자신만 고향집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숙은 발버둥치며 울고불고 야단이었다. 하지만 인심 사납다는 도시에서 그럭저럭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식구는 최대한 단출할수록 좋았다. 생떼 같은 자식의 울음소리를 외면하며, 어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손가락과 함께  
날아간 꿈

1966년 벽두, 안양으로 올라온 진수 모자는 냉천동<sup>7)</sup> 근명여상 밑에 허름한 단칸 셋방을 얻었다. 가재도구라곤 이불 한 채와 그릇 몇 개, 진수가 애지중지하는 얇은뱅이책상밖에 없었다. 통나무로 만든 그 무거운 것을 어머니는 기어이 머리에 이고 올라 왔던 것이다. 금성방직에 다니던 둘째 딸 현자도 곧 냉천동 집에 합류하였다.

예부터 안양은 숲이 넉넉한데다 아담하고 경치 좋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고장이었다. 북쪽으로는 관악산 줄기가 서울과의 사이에 있고, 서남쪽으로는 수리산과 수암봉이 시흥군과 화성군의 경계를 따라 줄기를 뺏으며 안양을 감싸 안는 형국이었다. 그 가운데에 놓인 타원형의 분지가 안양 사람들의 터전으로, 남북을 가르는 안양천과 동서를 가르는 수암천, 학의천, 삼성천 등 크고 작은 내가 맑은 물을 넉넉히 대 주고 있었다.

그러나 진수 모자가 올라올 무렵의 안양은 ‘금행열차가 서지 않는 작은 서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경부선이 개통된 1905년, 이곳에 경부선 특급 열차가 서지 않았던 것은 당시 안양이 시흥군 서이면이라는 한산한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이 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신들린 듯 좇았던 근대화 주역 노릇을 서울이 도맡게 되자, 그 이남에 있던 안양이 서울시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공장들을 물려받기 시작했다. 공장들은 부쩍부쩍 늘어나 1964년에 33개였던 제조업체가 1969년에는 75개가 되었고, 그와 함께 안양의 이름을 높인 드넓은 포도밭도 사라져 갔다.

김진수 모자가 냉천동에 동지를 튼 것은 그해 3월 진수가 가까운 안양공업고등학교 야간부에 입학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sup>8)</sup> 당시 안양공고는 염직, 전기, 건축, 기계 등 네 개 과를 두고 있었는데, 김진수가 정확히 어느 과로 진학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고교 재학 중 김진수가 안양읍 안양리에 있는 타일 공장<sup>9)</sup>에 다녔고, 공장 내에서 프레스를 담당한 것으로 미루어 기계과가 아니었을까 추정할 뿐이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의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공장일이 끝나면 곧바로 학교로 달려갔다. 집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을 오가는 첩바퀴처럼 돌고 도는 생활이었지만, 김진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보이는 듯싶었다. 이제야 비로소 제힘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게 됐다는 생각만으로도 손아귀에 절로 힘이 솟아났다. 한달에 한 번 봉급날, 알뜰하나마 누런 월급봉투를 어머니 앞에 내밀 때마다 뿌듯했고, 제 자신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받은 용돈을 푼푼이 모아 자전거를 한 대 샀다. 걸어 다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

타일 공장 일은 고되고 힘들었다. 고급 타일은 주로 수입 타일에 의존하긴 때라, 당시 국내에서 만들어진 타일은 주로 양질의 도토(陶土)나 장석분(長石粉)을 원료로 한 벽돌식 소형 타일이었다. 타일 제조 공정은 대체로 원료를 분쇄 건조하여, 혼합하고, 가압 성형한 것



관악산에서



에 유약을 발라 1000°C 이상의 고열로 구워(소성) 내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타일은 욕실이나 변소의 바닥, 벽 등을 마감하는 외장용 자재로 팔려나갔다.

어린 소년공으로서 하루 종일 여러 고참 숙련공들이 시키는 대로 잡심부름을 하고, 포장된 타일 박스를 나르다 보면 체력 소모가 심해, 학교에 등교할 때쯤이면 진수의 몸은 폭 삶은 파처럼 축 늘어지기 마련이었다. 교실 뒷자리에 앉아 비몽사몽간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열한 시, 어머니가 때맞춰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뜨는 등 마는 등 짐작처럼 이불 위에 엎어지기 일쑤였다.

어머니는 그런 진수가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이들 모자가 사는 곳은 더 이상 언제라도 문을 나서면 정겨운 얼굴들을 대할 수 있고, 뉘 집 손가락이 몇 겹지 훤히 헤아릴 수 있는 고향마을이 아니었다. 돈을 지니지 않으면 행보조차 자유롭지 못했고, 낯선 사람이 무서워 대낮에도 문을 꼭꼭 닫아 뒹야 하는 척박한 도시였다. 어머니는 튀밥이나 오뎅 장사를 해서라도, 식당에 나가 허드렛일을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아들을 돕고 싶었다. 그러나 진수는 펄쩍 뛰었다.

“길도 모르시는 분이 어딜 나가신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여긴 입실이 아니에요. 답답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는 점심시간에 맞춰 지은 더운밥을 공장으로 날랐고, 저녁이면 금방 지은 밥이 조금이라도 식을세라 아랫목에 물어놓고도 안

심이 안돼 이불로 꼭꼭 여며놓곤 했다. 그러나 진수는 날로 수척해졌고, 아침마다 세숫대야에 벌건 코피를 쏟아 냈다. 어머니는 밤마다 자는 아들의 양말을 벗겨내고, 따뜻한 물에 적신 김나는 수건으로 정성스레 손발을 닦아 주며 눈물지었다.

‘고등 공부시키려고 정든 고향을 떠나 왔는데, 공부도 마치기 전에 이놈의 서울이 우리 진수 잡겠구나.’

어느 날 어머니는 시장길에서 이웃집 젊은 새댁과 마주쳤다. 이런 저런 얘기 끝에 그 새댁이 하는 말이 자기는 요즘 가까운 공장에서 스웨터를 받아다 수놓는 일을 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반찬값은 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다.

“새댁, 그일 나도 좀 받아다 주면 안 될까?”

“아주머니도 하시게요?”

“집에 있으려니 심심해서……. 근데 내가 오십 평생 농사일밖에 못 해 본 반병신이라 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일은 어렵지 않아요. 날짜만 딱딱 맞춰 주면 일감은 공장에서 얼마든지 줄 거예요.”

“아유, 고마워서 어찌나?”

그날 밤, 어머니는 기쁜 낯으로 낮에 있었던 일을 진수에게 전했다. 그러나 진수의 반대는 완강했다.

“어머니, 그런 일하려면 도로 내려가세요. 우리가 집이 없어요, 논이 없어요? 어머니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해요?”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노니 답답해서 그러지.”

“어머니가 왜 하는 일이 없어요? 둘째 누나하고 내 뒷바라지해 주는 것만도 어딘데.”

그렇게 말하는 진수의 얼굴은 다소 상기돼 있었다. 아들의 힘을 덜어 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이해하지 못할 것인가. 그러나 안양에 올라와 취업을 한 순간부터 진수는 이미 자신을 가장이라 생각해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잣말로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허리가 휘게 일만 해 온 어머니를 풍족하게 모시지는 못할지언정, 이 각박하고 몰인정한 도시에서까지 돈벌이에 나서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고향에서 받았고, 이제는 진수 차례였던 것이다.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어머니, 어려워도 조금만 참아 보세요. 곧 기계를 잡게 되면 월급도 올라가니까, 우리 형편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몇 개월 후 진수는 과연 양성공 시절을 마감하고 프레스기를 만지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진수는 체력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일당이 몇 푼 오르긴 했지만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 타일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성형하는 프레스기가 언제 어느 때 제 주인의 손을 덮치는 괴물로 둔갑할지 몰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다. 작업이 끝나면 세수할 겨를도 없이 탈의장에서 곧바로 학생복으로 갈아입고 땀다 학교로

뛰어야 했다.

하루 종일 뿌연 분진과 굉음과 반장 조장의 욕지거리에 시달리고,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프레스기 앞에서 졸린 눈을 부릅뜰 때, 밤늦은 시각 야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장 굴뚝 위에 걸린 행한 달을 쳐다볼 때, 흐느적거리는 몸을 억지로 가누고 앉아 어머니가 차린 밥상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볼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 이게 삶인가 싶은 서글픈 순간이 닥쳐오곤 했던 것이다.

진수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노동자를 하나의 부품처럼 취급하는 살벌한 공장 분위기였다. 기계가 돌아가는 한 개인 시간은 바늘구멍만큼도 낼 수 없었고, 아무리 용변이 급해도 오전 오후의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잡담은 금지되었고, 자칫 관리자의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욕설은 물론, 때로는 구타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데가 바로 공장이라는 곳이었다.

하지만 당시 김진수와 같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온 농촌의 아들딸이었다. 논일도 하고, 쟁기로 밭도 갈고, 냇가에서 가재 잡고, 여름에는 수박 서리를 하고, 겨울밤에는 화롯가에 빙 둘러 앉아 밤을 구워먹으며 친구들과 밤새 애기꽃을 피우던 시골의 순박한 처녀 총각들이었다. 큰 일 치를 때면 모두가 달려 나와 도와주는 동네 어른들의 넉넉한 인심을 보고 자란 이들은 비록 가난에 떠밀려 도시로 나와 노동자가 되었으나, 아직 심성은 때 묻지 않았고, 공동

체적인 농촌의 감성이 몸에 배 있었다.

그 때문에 이들은 관리자들의 폭언과 폭력에,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 무섭고 위협적인 공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잔업하고, 굶어죽지 않을 만큼 쓰고, 남은 것을 푼푼이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희망이라 여길 뿐이었다. 아직까지 이들에게 공장이란 성공의 꿈을 향해 가는 길에 잠시 머물고 있는 공간에 불과했다.

타일 공장에 취업한 김진수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의 월급과 둘째 누나 현자가 간간히 내놓는 돈으로는 목돈 마련은커녕 세 식구 입에 풀칠하고 야간학교 학비를 대기에다 빠듯했지만, 그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미래가 타일 공장 프레스기 위에서 멈추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의 희망은 일차적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야간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하여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야 말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생전의 기대에 값하고, 어머니의 희생을 보상하며, 동생 현숙의 미래에 새 빛을 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다. 대학가에서 책방을 경영하는 외삼촌에게서 대학생들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수의 가슴은 자못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울렁거렸다.

그러나 뜻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해 김진수의 꿈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1966년 가을 무렵의 어느 날이었다. 학교 시험 일정

에 쫓겨 밤잠을 설친 진수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줄곧 지독한 식곤증과 싸우고 있었다. 졸음을 쫓기 위해 차가운 물로 세수라도 하고 싶었지만, 규정상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작업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기계 소리도, 반장들의 고함소리도 무섭게 쏟아지는 졸음을 방해하진 못했다. 10분이라도 잘 수만 있다면, 먼지구덩이 작업장 바닥에 길게 드러눕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원료 공급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 고장인가? 퍼뜩 잠이 깨 버린 진수가 기계를 끄고 프레스 금형 사이에서 타일을 꺼내려는 순간, 위로 치켜 올라갔던 절단기가 무서운 속도로 내려왔다. 옆자리에서 일하던 박씨가 무의식중에 다시 기계를 작동시킨 것이었다.

“악!”

날카롭게 터져 나온 비명 소리는 놀랍게도 진수 자신의 것이었다. 왼손 가운데손가락이 잘려나간 자리에 왈각 붉은 선혈이 솟구쳤다. 이 급작스러운 사태에 진수는 어쩔 줄을 몰랐다. 프레스 금형 위에서 하얗게 굳어 가는 잘린 토막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기계 꺼!”

반장이 욱지거리를 내뱉으며 달려왔다.

“뭘야, 잘렸어?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에이 바빠 죽겠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보호 장치조차 없는 작업장에서 손가락이 잘려도 그 책임은 노동

자에게 있을 뿐이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하는 반장의 말이 징그러운 뱀처럼 머리에 휘감겼다. 진수는 심한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박씨와 함께 가까운 병원으로 간 진수는 간단한 응급조치를 받았다. 지혈과 소염제 몇 알이 병원 처방의 전부였다. 병원비를 내는 박씨의 얼굴은 진수보다 더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박씨는 병원 문을 나서며 진수에게 담배를 권했다.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김 군아, 마, 미안하다.”

“됐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나마 왼손이니 다행이라 해야 할지, 휴우…….”

“…….”

진수는 자꾸만 떠오르는 어머니의 얼굴을 지우려 애썼다.

“그동안 여기서 잘려 나간 손가락만 해도 몇 가마니는 될 거야…….”

박씨는 질푸른 하늘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나 김진수에게 그것은 ‘첫 번째’ 사고였을 뿐이었다. 그 해가 채 가기도 전에 진수는 다시 두 번째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왼손이었다. 손가락이 완전히 잘려 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 있다가는 손가락 하나도 남아나지 않겠구나’ 하는 공포를 심어 주기엔 충분한 사고였다. 진수는 손가락이 잘린 후부터 시작된 고



민을 일단락 지을 때가 왔다는 것을 절감했다. 학교 수업도 빠진 채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돌아온 진수는 하얗게 질린 어머니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붕대를 감은 진수의 손가락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어머니, 아무래도 저 여기 그만뒀어요.”

“아이고, 그랴! 제발 그랴! 사람 잡는 그깟 놈의 공장, 더 댕겨 봤자 지 명대로 못 살 거여.”

“이런 데서 돈 몇 푼 받고 있느니, 요꼬<sup>(1)</sup> 학원이라도 다녀서 기술을 배워야겠어요.”

“그랴, 그랴…….”

어머니는 요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고개를 주억거렸다. 죽으로 끼니를 연명하던 어머랴. 아들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곳이라면 가족의 평화를 흔들지 않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좋았다.

그 해 겨울, 타일 공장을 그만둔 김진수는 곧바로 안양에 있는 모 요꼬 학원에 등록했다. 1960년대 중후반은 수출 붐을 타고 스웨터 보세가공업이 한창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요꼬 회사가 하나씩 생긴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그 여파로, 편직 기술을 속성으로 가르치는 3개월, 6개월 과정의 요꼬 학원도 곳곳에서 문을 열어, 시골에서 갓 올라온 우직한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섬유류 제한과 값싼 노동력을 거느리고 있는 중국의 진출 가능성 등으로 보세가공업의 전망이 어둡다고 진단하기도 했지

만, 완전한 기계화가 될 때까지는, 일본이나 이탈리아보다 강도 높은 저임금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 시장이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원에서 3개월 속성 과정을 마친 진수는 경력을 쌓기 위해 독섬에 있는 작은 요꼬 하청 공장에 들어갔다. 무역부가 따로 없는 이들 하청 공장들은 편직기 수십 대를 갖춰놓고 큰 공장으로부터 오더를 받아와 스웨터를 생산하는 곳이었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겼다 사라지곤 하는 이들 하청업체 중에서도, 납품 날짜를 잘 지키고 생산품도 원청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잘 빼 주는 곳이 대기업의 고정 거래처로서 탄탄하게 자리 잡기 마련이었다.

김진수가 들어간 독섬의 편직 공장은 공장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규모의 작은 하청업체였다. 창고 귀퉁이를 빌린 조그만 점포에 기계 몇 대 들여놓고 가내 노동 형식으로 운영하는 재하청의 하청 공장이었다. 이런 영세업체의 작업 환경이란 아예 근로기준법 밖의 무법지대라 해야 옳았다. 탈의장, 식당은 생각할 수도 없고, 환기 장치조차 없어 실밥, 먼지 등이 뒤범벅된 속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각박한 상황이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 다리가 통통 붓는 것은 예사였다. 냉난방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여름이면 혹심한 피부병에 시달렸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다 못해 심지어 동상에 걸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곳일수록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명분으로 월급도 안 주고 온종일 일꾼들을 부려먹었다.

김진수는 오직 기술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그 모든 악조건을 참아냈다. 힘들 때마다 그는 언젠가 외삼촌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기술을 배워. 기술은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를 닮아 꼼꼼하고 눈썰미가 있었던 그는 빠른 속도로 요꼬 기술을 배워나갔다. 타일 공장에서 왼쪽 손가락 하나를 잃는 사고를 당하고 잠시 실의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제 그는 기술을 배우는 만큼 그의 희망도 커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 그는 ‘편직기를 다루는데 주로 오른손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할 줄 알았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김진수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친구들과 과 차례로 해후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 중에도 요꼬 기술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김진수가 요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1968년은 김진수가 갓 스무 살이 되는 해였다. 북한 특공대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폭파하기 위해 휴전선을 넘어와 세검정에서 저지된 이른바 1·12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그 막을 열었던 1968년은 나라 안이 매우 어수선했다. 특히, 1967년에 이은 극심한 한발로 굶주리다 못한 젊은이들의 상경이 각 지역에서 줄을 이었다. 1968년 벽두 신년사를 통해 전년도 수출 3억 6천만 달러 달성을 자축하면서, 국민 모두가 조국 근대화 작업의 기수가 되자고 호소하며 저곡가 저임금 정책을 고수하던 박정희 대통령도 엄청난 가뭄으로 농촌 민심이

홍홍해지자 경제기획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물가에 좀 영향을 주더라도 쌀값을 올려!”라고 지시했다는 바로 그 해였다.

한영섬유공업주식회사의 편직공이 된 김진수는 입사와 동시에 2년 가까이 다녀온 학교를 그만두었다. 하루 15시간의 근무 시간, 한 달에 열흘은 꼬박 철야를 해야 하는 한영섬유에서 학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20년 동안 고이 키워 온 꿈을 장담할 수 없는 먼 훗날로 접어 뒤야 하는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도시의 냉혹한 현실을 체험한 그에게 그것은 어찌면 사치스러운 꿈일지도 몰랐다.

이제 그에게 남은 하나의 길은 편직 기술자로서의 길이었다. 당시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길을 택했던 이유는 도급제가 주는 매력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도급제는 기본급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연장하려는 알뜰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교묘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나, 대다수의 가난하고 순진한 노동자들에게는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듯이 보였다.

김진수 역시 그러한 가능성에 매달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가장인 진수의 양 어깨에 드리운 짐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다. 얼마 전에는 고향에 있는 큰누나에게서 기별이 왔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막내 현숙을 곧 안양으로 올려 보낸다는 것이었다. 이제 막내가 자리를 잡고 기술을 배워 밥벌이를 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진수가 돌봐 줘야 할 터였

다. 냉천동 집은 어머니와 장성한 세 남매가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진수는 어머니와 상의하여, 북부동<sup>10</sup>에 있는 일자 한옥의 조금 널찍한 문간방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막내 현숙을 안양의 모양재 학원에 등록시키며 일렀다.

“현숙아, 판만 먹지 말고 착실히 기술을 배워라. 양재 기술을 배워 양장점이든 어디든 취직하면 우리 식구 어머니 모시며 충분히 살 수 있어.”

어린 동생에게 하는 말은 곧 진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1968년 초겨울 아침이었다.

출근길, 영등포행 만원버스에 몸을 실은 진수는 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아까부터 자신에게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두드리던 그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큰 소리를 냈다.

“김진수!”

“어?”

그는 이성렬이었다. 성렬은 동향 친구는 아니었지만 출퇴근길에 우연히 만나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는 당시 안양의 친척집에 기숙하며, 영등포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진수는 반가운 마음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그쪽으로 가려 했으나, 터질 듯한 버스 안에서 콩나물 처럼 엉켜 있는 사람들을 뚫고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가운 눈짓만 교환하던 두 사람은 내릴 때가 다 되어서야 마침내 나란히 앉을

수 있었다.

“용하네? 자리를 다 차지하고.”

“내도 오늘 처음이다 아이가. 버스에 딱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막 일어나시는 기라. 아무래도 오늘 무슨 억수로 좋은 일이 터질라꼬 그라는갑다. 그나저나 니 동생 학원 잘 다니나?”

“응, 지적성에 맞는지 곧잘 다녀.”

“다행이네. 아이고, 내사 마 오번 달에 우째 살랑가 모리겠다.”

“왜?”

“그 잘난 봉급 받아갖고 집에 쪼매 부치고 가게 외상값 갚으이까네 고마 달랑 삼천 원 남는 기라. 니 오번에 올매나 올렸노?”

“만 이천 원.”

“이야, 김진수 대단하데이!”

한영섭유의 임금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월급제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도급제가 시행되는 편직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급제였다. 도급으로 일을 하는 편직부 노동자들은 한달 평균 1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돈을 받기 위해 휴일도 없이 악착같이 일을 해야 했다. 선적 날짜가 임박하면 저마다 알아서 밤을 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3년 이상 숙련공 중에서는 2만 원 돈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경우,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한 거의 20시간 가까운 시간을 기계에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니 성렬의 눈에는 입사 초반에 만

이천 원을 올린 진수가 대단해 보일 만도 했다.

“아냐. 이번 달엔 야간 철야를 좀더 해야겠어. 만 오천 원 돈만 되면 우리 식구 그럭저럭 먹고살 수 있겠는데…….”

“야야, 죽는소리 좀 작작 하그라. 고향에 논 있고 집 있겠다, 그라고 느그 둘째 누나도 금성 방직 다닌다고 안 했냐? 술도 안 마시는놈이 무신 돈을 데가 있다고 아침부터 돈타령이고? 말도 마라, 내는 한영 와서 처음에 만 원도 못 받았다 아이개!”

“…….”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성렬의 말이 꼭 틀렸다 할 수는 없었다. 둘째 누나는 방직공장에 다니고 있고, 시골에는 집이 있고 논이 있었다. 그러나 둘째 누나가 버는 돈은 한창 몇 부릴 나이에 자기 앞가림 하기도 모자라는 돈이었다. 게다가 어머니 말로는 사귀는 사람도 있는 눈치여서, 머지않아 시집갈 누이와 굳이 짐을 나누고 싶지는 않았다. 또 시골에 논이 있다 하나 가난한 큰누이네가 그걸로 생활을 이어가는 눈치라, 결국 집안의 생계는 온전히 진수의 몫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수는 아무리 친구라 해도 성렬이한테 구차하게 그런 사연까지 밝히고 싶지는 않았다.

성에 낀 창유리를 손바닥으로 닦으며 밖을 내다보던 성렬이 후다닥 일어서며 외쳤다.

“야야, 내리자!”

두 사람은 수십 개의 공장 굴뚝이 흩어져 있는 신대방동공단 입구



한영섬유 근무 당시 가장 친한 동료 이성렬과 함께(왼쪽이 김진수). 입고 있는 스웨터는 한영섬유에서 만든 옷이며, 70년대에는 파베기 문양이 유행했다.



에 들어섰다. 수많은 남녀 노동자들이 허영계 입김을 쏟아내며 뿔뿔이 걸어가고 있었다. 공단 입구를 막 지나 첫 번째 왼쪽 골목으로 들어서면 4층짜리 블록 건물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5백여 명의 남녀 종업원을 거느린 한영섬유공업주식회사 영등포 공장이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철문이 굳게 잠긴 채 ‘면회 사절’이란 팻말이 내걸려 있는 이 공장은 1960년대 의류 수출 붐을 타고 기반을 다진 스웨터 보세 가공 공장이었다.

당시 영등포 일대는 토지가 넓고 공업 용수, 동력, 교통 등 입지 조건이 유리한 탓에 많은 공장이 밀집해 있었다. 김진수가 사망한 해인 1971년 5월 말 기준으로 당시 영등포 현황을 살펴보면, 16인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업체만 해도 744개나 되었고, 상용 근로자 수도 210,164명에 이르렀으니, 고용인 16인 이하의 소규모 공장과 하청업체까지 합치면 그 수는 엄청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영섬유는 보세가공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른바 ‘잘 나가는’ 회사였다. 미국, 일본 시장이 주 타깃인 스웨터 보세가공은 1950년대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일본과 국교가 트인 직후에는 그 기세가 절정에 달했다. 서울 시내 1백 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4백여 업체 중에서 무역부를 갖고 있는 회사는 마산방직, 일신, 동광통상, 해양 등 40여 개 업체로, 서울시에서는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연간 50만 달러 이상의 수출 목표를 할당해 왔다.

“오늘부터 야간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우에 이리 노곤하노.”

입에 문 담배에 성냥불을 붙이며 성렬이 말했다. 각질이 하얗게 일어난 성렬의 볼은 움푹 꺼져 있고, 연신 하품을 하는 입가엔 피곤이 덕지덕지 매달려 있었다. 진수 역시 피곤하긴 마찬가지였으나, 그의 깔끔한 옷차림과 해사한 용모는 아무렇게나 차려입은 성렬과 뚜렷이 대비되어 보였다. 비록 일년을 남기고 중도에서 하차하긴 했지만 고등학교를 다닌 그의 경력은 일반 공원들에 비해 상당한 고학력이었고, 잘생긴 얼굴과 단정한 행동거지, 옆구리에 늘 끼고 다니는 책은 그를 보통 노동자들과는 다른 -흔히 ‘이런 데서 일할 사람 같지 않다’는 식의- 특별함을 가진 인물로 도드라져 보이게 했다. 그래서인지 가공부 여공들 중의 몇몇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진수에게 은근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급제가 시행되는 가공부(加工部)에는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 진수는 가공부 여공들을 볼 때마다 둘째 누나 현자를 떠올리곤 했다. 벌써 몇 년째 방직 공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둘째 누나의 월급은 6천 원대에 머물러 있었다. 가공부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들의 임금은 개인의 능력과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견습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월 3천 원에서 시작하여 3천6백 원가량을 넘지 못했다. 법정 견습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4, 5개월을 넘기는 건 기본이었고, 임금도 한두 달에 한 번 겨우 10원씩 올려 주는 게 고작이었다. 견습 딱지를 떼고 근속년수가 1, 2년쯤 되면 6천 원, 그리고 5, 6년쯤 되어야 8, 9천 원 선이었다.

김진수와 이성렬은 수위실에서 출근부에 체크를 하고 곧장 4층으로 올라갔다. 60평 남짓한 건물 1층엔 사무실과 검사부, 창고가 들어 있고, 2층에는 세팅(setting) 검사부, 3층은 사시(linking) 및 해사부가, 4층은 편직부 등으로 작업장이 배치되어 있었다. 직기 1백10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4층 편직부에는 몇몇 부지런한 이들이 벌써 기계에 매달려 일을 하고 있었다. 작업장 한편에 칸막이로 가려놓은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진수와 성렬은 짧은 미소를 나누고는 각자의 기계 앞으로 흠어져 갔다.

진수는 옆자리에서 흔들리는 직기를 들여다보느라 눈을 잔뜩 찌푸리고 앉아 있는 강씨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서 작업하다 보면 누구라도 온전한 시력을 부지하기가 어려웠다. 강씨 역시 입사할 때 1.5이던 시력이 3년 만에 0.5로 떨어졌다고 했다.

“형님, 일찍 나오셨네요?”

진수가 형님이라 부르는 강씨는 한영섬유에 첫 출근한 진수에게 이런저런 친절한 설명을 해주었던 유일한 고참이었고, 아직까지 진수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했다.

“어어, 그래……. 아침은 먹었냐?”

“네에, 형님은요?”

강씨는 빙긋이 웃으며 툭툭 배를 두드려 보였다. 그러나 웃는 얼굴은 핏기 한 점 없이 창백했고, 흘쭉한 배를 감싼 작업복 바지허리는 어른 주먹 두 개는 족히 들어갈 듯이 헐렁했다. 결혼한 사람이 설마

아침밥을 못 먹었겠는가. 진수가 보기에 강씨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 상태였다. 한영섬유 편직공 중에서는 드물게 이만 오천 원 돈을 받아 가는 그는 언젠가 진수에게 한영섬유에 와서 네 시간 이상 자 본 적이 없노라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비수기인 여름을 제외하고 말이다.

계속되는 야간과 철야로 몸무게가 11kg이나 줄었다는 강씨는 만성 두통과 위장병, 관절염에 시달렸지만, 진통제 한 알 살 돈이 아까워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었다. 억지로 통증을 참는 모습을 보다 못해, 한번은 진수가 약을 사다준 적이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감동한 그는 차마 약봉투를 열지 못하고 고마운 마음을 겨우 이렇게 표현했다.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모아 놔야 해. 세상에, 돈 아까운 줄을 알아야지…….”

노동청 감독으로 형식적이거나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지만, 한영섬유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그리고 설사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백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몰아넣고 두어 시간 만에 똑딱 해치우는 형식적이고 조잡한 건강진단으로 직업병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진수는 책과 도시락이 들어 있는 가방을 사물함에 밀어 넣고 배당 받은 스웨터 몸판 작업을 시작했다. 기계 앞에 앉아서야 비로소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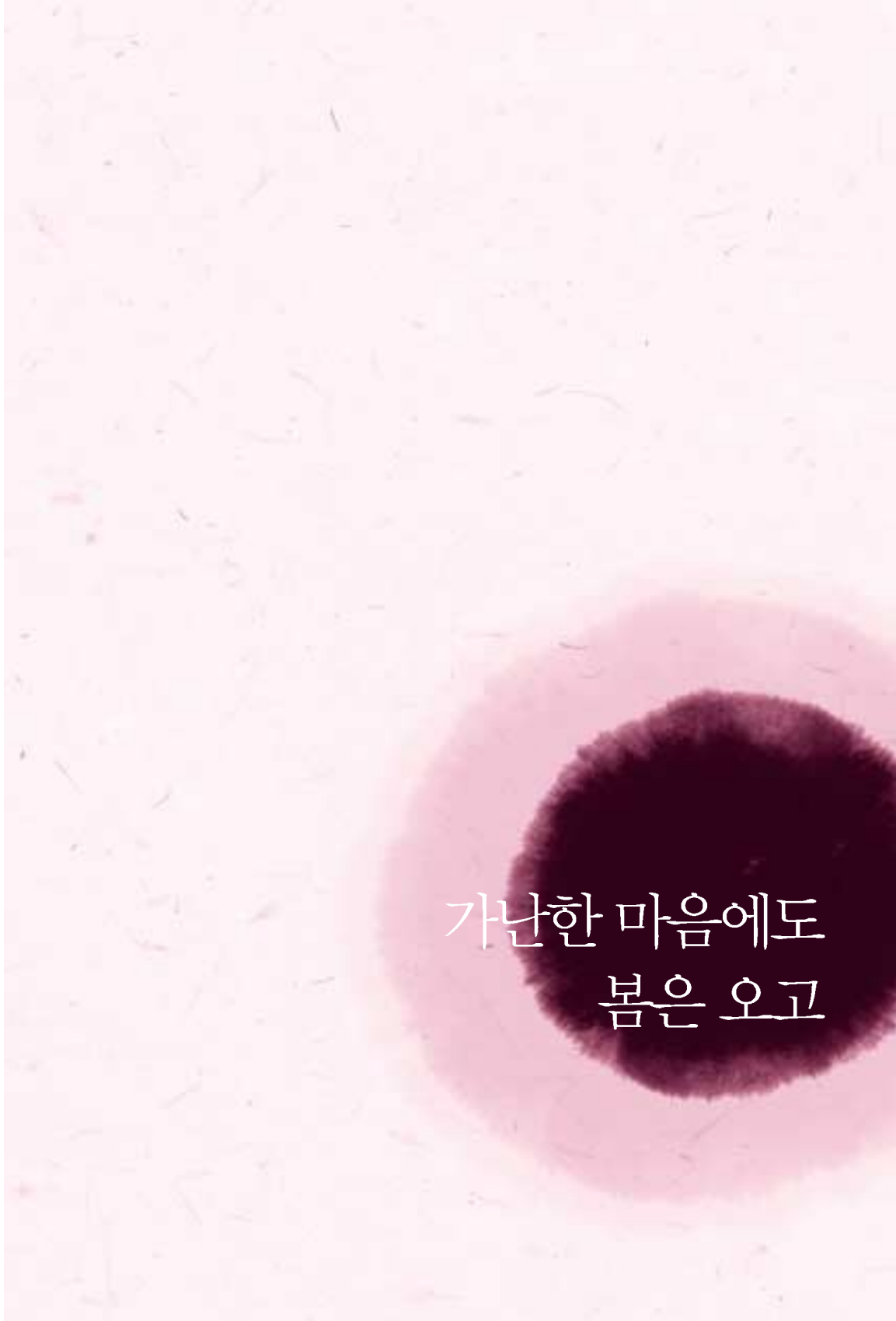
장 안에 고여 있던 미세한 실먼지가 아침 햇살을 타고 부영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편직부와 해사실에는 언제나 다량의 분진이 일어났다. 여기서 3년 이상 일한 사람치고 기관지 성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노동자들을 위한 후생시설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회사에서 그런 것을 마련할 리도 없지만, 혹 있다 해도 점심시간이 겨우 3~4분에 불과한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작업 중엔 밖에 나갈 일이 있어도 절대 허락되지 않았고, 면회도 물론 안 됐다. 지난 추석 때 가공부의 한 아가씨는 고향 가는 차표를 끊어 온 친척이 면회 신청을 했는데도 끝내 허락되지 않아 결국 내려가지 못했다고 했다. 약속한 기한을 어기면 손해배상이나 심하면 계약 취소를 당하는 일까지 있기 때문이라지만, 진수는 속으로 회사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손가락을 잃기는 했지만, 전에 있던 타일 공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몰인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장 유해풍은 그런 불만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듯 특하면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다.

“이 많은 사람들 개인 사정 다 들어주다가는 회사 다 말아먹습니다. 유지 못해요! 회사 입장에선 당장 작업 능률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납품 날짜 못 맞추면 여러분이 책임질 겁니까? 또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든 그래요. 시간 있고, 여유 있어 봤자 짧은 기분에 한 잔 하고 하다 보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 종업원들 거의가 객

지 생활 아닙니까? 여기 회사 문만 열고 나가면 유흥가, 윤락가, 다 여러분 주머니 후릴라고 눈 벨건 놔들밖에 없어요. 깡패들도 드글드글해. 돈만 뺏기냐? 어이, 김 양아, 돈만 뺏겨?”

가공부의 여자들을 훑어 내리는 공장장의 눈길에 진수는 웬지 모를 모욕감을 느꼈다. 일부 여성 노동자들이 쉽게 윤락가에 들어서는 현실을 빚낸 공장장의 농담 아닌 농담에 저항감이 일었던 것이다. 물론 공장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탈선의 길로 빠지기 쉽다는 사실은 진수도 잘 알고 있었다. 영등포 일대의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의 85%가 시골 출신이었고,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보세가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은 특히 낮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탈선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 단지 공장 주변 환경의 탓인가? 아니면 무식의 소치인가? 공장에서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생활을 유지할 만한 임금을 받는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빚어질까? 자신의 생각을 또렷이 정리하여 표현할 자신은 없었지만, 진수는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을 거듭하고 있었다.



가난한 마음에도  
봄은 오고

이듬해인 1969년 가을, 둘째 누나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집에는 진수와 어머니, 동생 현숙 세 사람이 남았다. 둘째 매형은 금성전선<sup>12)</sup>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 북부동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림집을 얻었다. 그 해 봄, 작은 양장점에 들어간 현숙은 잔심부름을 하며 경력을 쌓고 있었다. 현숙은 양재 학원 정규 코스를 마친 자신이 양장점에서 하는 일이라곤 연탄불을 피우고, 다리미를 닦거나, 청소하는 것밖에 없다고 노상 투덜거렸다.

“남의 돈 받아먹는 일이 쉽냐? 눈꼴시고 아니꼽살스러워도 꼭 참고 다녀. 누가 뭐라 그러면 무조건 예, 예 하고. 괜히 성질부리다가 가까운 직장 떨구지 말고. 느이 오빠도 경력 쌓는다 생각하고 다니라고 하지 않든?”

“직장은 무슨 직장! 일당을 3백 원씩 쳐 주기로 했으면 쥐야 할 거 아냐? 중국집 우동 두 그릇 값밖에 안 되는 그 잘난 돈도 톡하면 떼어 먹고.”

현숙은 인색한 양장점 주인을 탓하며 입을 비죽거렸다.

“차비는 오빠한테 타 쓰면 되잖아.”

“누가 차비 없어서 그러냐? 약 오르니까 그러지.”

“저 성질머리!”

현숙과의 입씨름에 지친 어머니는 그만 혀를 차고 돌아섰다. 그러나 막내딸과의 실랑이가 오히려 정겹게 느껴질 정도로, 이 즈음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봄바람 같은 생기가 돌고 있었다. 안양에 올라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 본 적이 없는 어머니였다. 철부지 막내를 고향 큰 딸네 집에 떠밀 듯이 맡겨놓고, 아들의 앓은뱅이책상을 이고 상경 열차에 오르던 날, 어머니의 마음은 살얼음 위를 걷는 듯 조마조마하고 두렵기만 하였다. 오로지 진수를 공부시켜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만이 어머니를 물설고 낯선 안양 땅에서 버티게 하는 힘이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타일 공장에 들어간 진수가 손가락을 잘리는 사고를 당하고, 요꼬 학원 다닌다고 돈 한 푼 가져오지 못할 때, 어머니는 비어 가는 쌀독을 쳐다보며 이웃집에 보리쌀 한 뒷박 꺾 달랠 주변머리도 없는 자신을 닮았다. 그 힘든 시기를 넘어 진수가 한영섬유에 입사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어머니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야간학교를 그만둔다는, 가슴 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부엌 아궁이에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고 또 쳤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모진 땅에 무얼 바라고 왔나? 보리죽이나 먹고 죽은 듯이 고향에 얹드려 있었으면 내 아들 손가락이라도 성했을 텐데……. 어리석은 여자의 마음에 아까운 아들 손가락만 날리고, 학교마저 날아가 버렸구나!’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웃는 진수였지만, 손가락이 잘리고 나서는 표정이 그리 밝지 못했다. 진수는 손가락이 잘리던 날 병원에 갔다 와 보니 잘린 손가락이 쓰레기통에 뒹굴터라는 얘기를 듣고두고



한영섬유 근무 당시의 가족사진(앞줄 왼쪽이 어머니, 그리고 오른쪽이 여동생, 뒷줄 왼쪽이 김진수 그리고 오른쪽이 작은 누나)

했다. 진수가 무의식중에 왼손을 가리는 행동을 할 때, 야간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책가방을 늘 끼고 다니는 걸 볼 때, 그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줄 때, 심지어 변소 갈 때조차 책을 들고 나가는 걸 볼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한영섭유에 입사한 지 그럭저럭 일년이 되어 가자 진수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다. 타일 공장 뒷마당에 손가락을 묻은 그 억울한, 학교를 포기한 설움을 이젠 조금씩 잊어가는 듯했다. 그와 함께 어머니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가난은 여전했으나 진수의 봉급이 조금씩이나마 오르고 있었고, 둘째딸 현자도 안정된 직장 가진 사람과 결혼했고, 철부지 막내인 줄만 알았던 현숙이도 양장점에 들어가 제몫을 하기 시작했다. 선불리 입 밖에 내지는 못했지만, 현숙이 거기서 한 일년 경력을 쌓고 본격적으로 밥벌이를 시작하게 되면, 진수가 못 다한 공부를 마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희망이 어머니를 설레게 했다. 대학까지는 나오지 않아도 좋았다. 중도에서 멈춘 공부의 한을 풀기만 할 수 있다면! 세 식구가 끼니 걱정하지 않고 오순도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진수의 표정에 화기가 돈다는 것은 어머니만의 느낌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직 작업에도 이력이 붙었고, 고향 친구들 몇이 한영섭유에 합류하면서 싸늘하게 식어가던 진수의 마음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성렬처럼 안양에 거주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들은 이른바 ‘안양파’ 를 이루어 어디든 몰려다녔다. 식당에 갈 때도, 공장

앞 가게에서 김치 쪄가리에 소주를 마실 때도, 심지어 철야에 들어갈 때도 이들은 즐겨 같이 행동했다. 각자 상경해서 외롭고 고달프게 살아온 이들에게 한 공장에서의 만남은 마치 작은 향우회처럼 안온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김진수의 마음에 봄이 찾아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 무렵, 진수는 고향 친구 여동생의 소개로 안양의 T방직 실험실에 근무하는 이주희<sup>13)</sup>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까지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일이 없었던 진수는 세 살 연하의 발랄하고 귀여운 인상의 이 아가씨에게 단번에 이끌렸다. 첫 만남에서 상대에게 이끌렸던 것은 이주희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그때 추석 명절을 쇠고 만났는데, 처음부터 서로 호감을 느꼈어요. 눈썹이 짙고, 피부도 하얗고, 웃을 때면 오른쪽 뺨이 살짝 드러나고, 입가에 입꼬리가 패이곤 했죠. 안양 역전 근처에 삼원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날 거기서 <방아쇠를 당겨라>라는 외국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진수 씨는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한테도 효자고, 몇 시에 들어간다고 약속했으면 꼭 그 시간에 들어가요. 늦으면 불안해질 정도로, 외모도 깔끔하고 미남이었죠. 한번도 T-셔츠 바람으로 저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항상 깔끔한 곤색 마이에넥타이를 맨 단정한 차림이었죠. 주관이 뚜렷하고, 정의파에 가까운 경우 있는 성격이었어요. 매사에 틀림이 없고, 절대 남에게 피해 주

는 성격이 아니에요.”

스물한 살, 열여덟 살의 어린 연인은 서서히 사랑을 키워 갔다. 전 화도 없는 시절이라 서로의 회사로 보내는 편지가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다. 어쩌다 잔업이 없는 날이면, 진수는 주희의 회사 정문 앞에 있는 우편함에 약속시간과 장소를 적은 쪽지를 남겨 놓곤 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받쳐 들고 회사 근처에서 주희를 기다렸다.

가난한 연인들이 만나서 갈 곳은 많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만나면 늘 걸었다. 풀빵이나 오징어튀김, 야채튀김 같은 것을 한 봉지 사들고 수리산 밑의 병목안 계곡을 오르거나, 안양의 임업시험장을 한두 바퀴 돌거나, 비산리의 연주암이나 삼막사 쪽으로 올라가거나, 안양천변에 나가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기도 했다. 무작정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리를 쉴 만한 너럭바위가 나오면 진수는 꼭 바윗돌 위에 손수건을 깔아 주었다. 그리고는 사들고 온 풀빵이나 튀김 봉지를 찢어 사이좋게 나눠먹는 것이다. 가끔은 진수의 회사 동료 이성렬과 주희의 여자친구와 함께 어울려 유원지에 가기도 하고, 성렬의 자취방에서 찌개를 끓여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사실 생각만큼 그리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진수 씨는 잔업이 다 야간이다 늘 바빴던 것 같았구요. 그런데 70년에는 회사마다 임금쟁

의가 활발했어요. 우리 회사도 임금쟁의가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편지만 주고받다가 얼마 후에 제가 다시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애를 했다고 할까, 더 가까워지게 되었지요.”

두 사람이 사랑을 키웠던 60년대 말에서 70년에 이르는 이 시기는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그 강도 또한 격렬했던 시기였다. 물론 그 전에도 노동쟁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항한 예는 거의 없었다. 전쟁을 경험한 '1세대 노동자' 들은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생산 현장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을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자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항상 자신과 가족의 생존 그 자체가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했다. 또한 이들은 전쟁 이후 내재화된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노동운동은 빨갱이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이의 없이 수용하였다.

그러나 6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가 된 전후 세대들은 반공에 압도당한 1세대의 체념적이고 수동적인 분위기로부터 다소 자유스러웠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들은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고무신과 막걸리를 주는 여당보다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실 박정희 정권의 제1, 2차 경제개발계획이 한국 사회에 물고 온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1960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취업 인구의 8%만이 광·공업 등 2차 산업에 종사했으나, 1970년 들어 이 부문 종사자는 14%로 증가했다. 1968~1970년 사이에만도 농촌 인구의 10%인 150만 명이 농촌을 떠났다. 국민총생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의 18%에서, 1967년에는 28%로 증가하였다. 1969년에는 15%라는 사상 최대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도 기록하였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60년대 말부터 표면화된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수출시장이 축소되고 대외개방형 수출산업화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의 후퇴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부딪쳐 위기를 맞은 수출 기업들은 그 부담을 노골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켰다. 또, 이미 1969년 3선 개헌 이후 정치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박정희 정권은 이제껏 자신을 유지시켜 온 경제 성장의 한계가 완전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기 시작한 노동자에게 더욱 억압적인 조치를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 벽두에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켰다. 박정희 정권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고, '파이'를 우선 증가시킨 후에 분배 문제를 해결하자며 노동자들에게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장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장밋빛 성장이데올로기에 끌려 비인간적 노동 조건을 감수해 온 노동자들은 '타이밍'을 먹거나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 줄음을 쫓으면서 잔업, 특근에 동원되고 씬 없이 재봉틀을 돌려봐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병들고 지친 몸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과거와 같이 수동적이지만은 않았다.

1970년, 작업장 곳곳에 '수출 목표 52만 달러 달성하자!'라는 선동적인 격문이 나붙던 한영섬유의 분위기도 그러한 흐름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었다. 회사는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자의 생산을 독려했고, 그 결과 그해 수출 목표 52만 달러를 상회하는 만족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지칠 대로 지친 노동자들에게서 짜낼 수 있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한영섬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잠을 줄여가며 이뤄낸 이 성과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터무니없이 낮은 기본급에 덕지덕지 붙은 각종 명칭의 수당들은 노동자들을 속이기 위해 회사 측이 벌이는 현란한 숫자놀이에 불과했다.

퇴근 후에 동료의 자취방이나 구멍가게에 모여 밤늦게까지 술추렴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모였다 하면 '어디어디에서 임금인상 쟁의를 한다더라', '내 친구 누구는 사장이 보따리 싸들고 날라서 월급

떼었다더라’ 하는 얘기들이 두서없이 오갔고, 술잔을 돌리는 횃수가 거듭될수록 ‘이거 가만 있다가 우리만 당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대차게 한 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란 말들이 튀어나왔다.

진수 역시 ‘안양 패거리’ 들을 이끌고 집에 오는 날이 많아졌다. 아들 친구들이 예고도 없이 밀어닥치면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대접하곤 했다. 단칸방 초라한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구들을 데려오는 아들이 고마웠고, 찬 없는 밥을 맛있게 비워 주는 진수의 친구들이 고마웠다. 아들 친구들이 불편해 할까 봐 부엌으로 내려온 어머니는 부뚜막에 쭈그러 앉아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현 양말을 꿰매거나 부엌일을 하곤 했다.

처음에 이들의 화제는 대개 각자의 사는 이야기나 흥미진진한 연애담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공장장이나 지배인을 비난하고 성토했다가 싶더니, 임금 인상이 어찌고 쟁의가 어찌고, 누구를 갈아 치워야 한다는 등 겁나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은 이들이 술김에 쏟아내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당시 한영섬유 편직공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불만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선적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루 한두 시간 수면으로 버티며 아등바등 뼈 빠지게 일해 봐도 돌아오는 것은 한숨 나오도록 알팍한 월급봉투뿐이라는 편직공들의 극심한 허탈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발 직전의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회

사 측의 모든 비열한 행위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특히나 지배인이나 공장장이란 자들이 힘없는 가공부 여공들과 어린 소년공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 견잡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었다. 관리자들이 계속되는 철야로 인해 졸음을 참지 못하는 여공들의 머리를 들고 있던 드라이버나 빨대로 쿡쿡 쑤시며 모욕적인 말을 퍼붓더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 끝까지 솟구치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니 지가 먼데, 지가 사장이고?”

“사장 아니라 사장 할애비라도 그렇지……. 야, 넌 어찌면 그런 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 반짝 들어서 패대기라도 치지.”

“나라고 왜 그러고 싶지 않았겠냐?”

“아니야, 혼자 나서서 될 일이 아니야! 하여간 이놈의 회사는 뿌리부터 싹 갈아엎어 버려야 돼.”

“우리도 한 판 해야 하는 거 아이까? 내 친구놈이 인천에 있는데, 이놈아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생기 갖고 월급도 착착 올르고, 관리자놈들 손버릇도 마이 좋아졌다카드라.”

“야, 솔직히 노동조합 있으나 마나 아니냐? 애기 들어보니까 노조 위원장하고 회사 하고 사바사바해서 지들끼리 다 해 쳐먹는다고 하더라.”

“그런 건 회사에서 만든 꼭두각시 노조고,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방에서 흘러나오는 친구들의 뜨겁고 격한 목소리들은 어머니의 가

숨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 물론 아들 진수는 처신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진수가 이들 모임의 보이지 않는 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진수는 과묵했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중심에서 불평불만을 아우르는 존재로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런 불안감을 쉽게 내색할 수 없었다. 아들을 의지하는 만큼 아들이 어렵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인가는 유난히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뒤 이 부자리를 까는 진수에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진수야, 데모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어쩔라고 그랴?”

“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되요. 그냥 모른 척하세요.”

“우리 이웃에 사는 이도 멧모르고 데모 하는 데 가담했다가 월급도 못 받고 고대로 쫓겨났단다.”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배운 기술이 있는데 설마 어디 가면 이만큼 못 살겠어요?”

김진수는 웃음 띤 얼굴로 그렇게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속 깊이 짙트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전태일,  
부인하고 싶은  
나의 얼굴

김진수가 이주희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1970년 가을 무렵이었다. 어머니는 호리호리한 몸매에 귀염성 있는 주희의 인상에 호감을 느꼈지만, 너무 이른 결혼 얘기에 선뜻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열아홉이라는 신부의 어린 나이도 다소 마음에 걸렸다. 물론 삼대독자 진수를 일찍 결혼시켜 아버지, 형제 없이 자라온 고독감을 풀어 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단칸방 신세도 면하지 못한 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덜컥 결혼부터 시킬 수 있겠는가. 어찌 어찌 결혼은 시킨다고 하더라도, 철모르는 열아홉 신부가 시집 안 간 시누이와 홀어머니의 시집살이를 한 집에서 견뎌 내려 하겠는가.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과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았다. 셋방을 얻어 따로 살림을 내줄 형편도 못 되었지만, 설사 능력이 있더라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자 집안의 기둥으로 섬겨온 아들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희들 따로 살림을 날 생각이나? 하고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만큼 아들은 어렵고도 어려운 존재였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 거미줄처럼 얽혀 들어가고 있을 때, 어머니의 미묘한 마음을 눈치 챈 진수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내일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걱정하세요. 그냥 사귀고 있는 사람이니 얼굴이나 한 번 보시라고 데려온 거예요.”

“걱정 안 할래도 당장 내 손에 뭐가 있시야 걱정을 안 하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는 방 두 칸짜리로 옮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 두 칸짜리로?”

혹시나 아들이 따로 살림을 나겠다고 할까 봐 전전긍긍하던 어머니는 진수의 그 한 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근심의 한 자락을 접은 어머니의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았다. 아들에게 속내를 들킨 것이 쑥스러웠던 어머니는 계산에도 없던 이야기까지 황망하게 늘어놓았다.

“허기는, 시골집이라도 처분해서 방이나 두 개짜리 얻으면 까짓 걸 혼 못할 것도 없지. 큰 방은 누이들 내주고, 우리 작은 방 쓰면 되니까.”

진수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에이, 어머니도……. 큰 방을 어머니가 써야지 왜 우리가 써요?”

“현숙이야 양장점 댕기느라고 집에 붙어 있을 새도 없는데 뭐.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다가 때 되면 치워버리면 고만이지.”

“어머니, 주희는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는 이주희의 발랄한 웃음과 사분사분한 말소리를 떠올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씩씩해 보이더라만……. 저쪽 집에서는 금텅이보다 더 귀한 막내딸일 텐데, 우리 같이 어려운 집에 보내려고 하실지 원.”

이주희의 집안은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먹고사는 일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 주희는 부모님과 두 오빠의 귀여움을 독차지해 온 막내이자 외동딸이었으니, 어머니가 그 집에서 혹시 반대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애지중지하는 막내딸을 선뜻 편모솔하의 가난한 청년과 짝지어 주려는 부모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한 한 이주희는 언제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오빠들은 자신이 설득할 테니 신경 쓸 거 없다는 것이었다. 주희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 생각이 확고하고 당찬 구석이 있는 여성이었다.

김진수와 이주희의 혼담이 무르익을 무렵,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 소식이었다.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 전태일은 불타는 몸으로 수백 명의 노동자가 모여 있던 국민은행 앞길을 달리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는 몇 마디의 구호를 외치다 쓰러졌다. 사람들은 불을 끌 엄두도 내지 못했다.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는 마지막 생명의 힘을 다 짜내어 부르짖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전태일의 분신은 저임금에 기초한 대외수출경제의 한계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강요된 자본과 권력의 억압에 대한 노동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극적으로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많은 노동자들

은 그의 죽음을 통해 ‘고도성장의 논리’가 자신들에게 낙인한 뼈저린 가난과 비인간적인 삶의 끔찍한 바닥을 소름끼치도록 생생하게 들여다보았다.

이 사건은 김진수와 같은 한영섬유 노동자들에게도 깊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 무렵, 김진수는 며칠째 한영섬유 3층 작업실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편직기 앞에만 매달려 있었다. 선적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고, 주희와의 결혼을 준비하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김진수가 전태일의 분신 소식을 알게 된 것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누군가 조간신문에서 올려 낸 전태일 분신 관련 기사를 식당에서 은밀히 돌렸던 것이다. 기사를 마친 편직공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웅성거렸다.

“사람이 얼마나 독하면 지 몸에 불을 낼 생각을 다 했을까?”

“사람이 극한 상황에 빠지면 뭐를 못하겠냐? 오죽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하고 소리치고 죽었겠냐? 내 조카도 평화시장에 잠깐 있었는데, 몇 달 일한 돈도 못 받고 도망쳐 나왔단다. 일하는 방을 위아래로 반을 쪼개서 2층으로 만들어 놔서, 애들이 원종일 허리 한 번 펴지 못한다. 지금도 개는 그 얘기만 나오면 아주 진절머리를 낸다. 감옥보다 더하다고.”

“제길, 여긴 뭐 감옥보다 낫냐? 몸이 아파도 맘 편히 하루 쉴 수가 있냐, 휴일이 있기를 하냐? 몸뚱이가 일당인 우리 같은 인생은 뼈골 빠지게 잔업 철야나 하다 몸 망가지면 그날로 그냥 가는 거야. 뭐 다

른 거 있어?”

“근데 저,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거냐?”

“글쎄 있으니까 제대로 지키라고 말들을 하겠지…….”

“일단은 기본급이 보장돼야 하고, 단가를 꼭 올려야 돼. 말이 좋아 도급제지, 원래 단가 생각하면 순 날도둑놈들 아니냐? 어떤 놈은 죽어라고 일하는데, 어떤 놈은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이니…….”

“야, 기본급이고 뭐고 난 일요일에 펴지게 잠 한 번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

“쉬잇! 공장장이다!”

전태일의 분신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특히 지식인 사회와 학생들은 수출 주도형 산업화의 이면과 경제 기적이라는 허울 아래 고통 받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각성하기 시작했다. 전태일의 비극적 죽음은 노동투쟁과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 간에 조심스럽게 연대를 모색하게 되는 강력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1970년은 조직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였다. 수출제조업 부문에 고용된 공장 노동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신출내기 산업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노동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가혹한 노동 조건조차도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착취와 학대가 건디기 어려운 극한 수준에 달했을 때, 노동자들의 누적

된 고통과 분노는 종종 감정적이고 격한 저항 행위로 나타나곤 했다.

노동자 내부의 변화는 고통스럽도록 느리게 진행되었다. 전태일의 죽음은 그 보이지 않고 한없이 느리기만 한 변화에 굼고도 의미 있는 방점을 찍었다. 그때까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는 저항과 반항의 정신을 심어 주고, 집단적인 목표를 위해 노동자들을 고취시키고 동원할 수 있는 성스러운 상징과 존경할 만한 전통이 없었다. 이제 전태일이라는 강력한 상징이 태어나자, 그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물론 시작은 미미했다. 그들은 제 나름의 처지와 방식으로 전태일의 죽음을 이해했다. 그들은 전태일이 분신 투쟁이란 극적인 방식으로 폭로해 낸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실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몸서리쳤다. 부인하고 싶은 자신의 얼굴, 그 참혹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그들에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에 순응하지 말라고 절규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1970년 말, 한영섭유에 밀려 온 새로운 기류를 살펴보도록 하자. 한영섭유에는 전태일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해 온 세력들이 있었으니, 바로 김용욱, 고석민, 이장원, 장은수 등과 같은 이들이었다. 이후 한영섭유 초대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로서 고난을 겪게 되는 이들은 노조 결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돈보스꼬



우정기념으로 한영섭유 동료들과 함께

청소년센터와 영등포 도시산업선교연합회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돈보스코 청소년센터를 이끌었던 인물은 현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 관장인 도요안 신부<sup>14)</sup>였다. 첫 임지인 영등포구 도림동 교회에서 100여 명의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지도했던 도요안 신부는 70년 돈보스코 청소년센터로 자리를 옮긴 직후 한영섭유 '어린 노동자' 들의 노조 결성을 도왔다. 그런데 한영섭유 노조가 결성되자마자 회사 측 사람들이 한 조합원<sup>15)</sup>에게 테러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현실적으로 테러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그는 매우 낙담했다.

“산업화 속에 철저히 짓밟히는 노동자들을 보며 71년 김수환(金壽煥) 추기경이 노동자를 위한 조직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신부와 수녀 평신도를 모아 노동사목위를 만들고 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sup>16)</sup>

비슷한 맥락에서 영등포 도시산업선교연합회<sup>17)</sup>도 한영섭유 노조 결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동자를 위한 유일한 전국적 조직이었던 한국노총이 그 관제적, 어용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70년대 초반의 노동자 상황에 거의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노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을 때,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노동청년회(JOC)와 같은 외곽의 종교 단체들은 노동운동의 가장 가까운 지원 세력이었다. 특히 전태일의 분신은 이들이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직접 공장에 들어

가 노동 현실을 체험하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그룹 활동, 노동자 교육, 노조 설립과 활동 지원 등 매우 광범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한영섭유의 김용욱, 고석민, 이장원, 장은수 등이 돈보스코 청소년센터나 영등포 산선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종교계의 지원으로 초보적인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편직업계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전국섬유노동조합 서울의류지부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각종 모임과 회의에 참가하여 알게 된 다양한 정보들을 은밀한 방식으로 한영섭유 노동자들에게 유포하였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전태일 사건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룬 신문 기사를 돌리고, 퇴근하는 편직공들에게 가끔씩 술자리를 제안했던 것도 역시 이들이었다.

김진수의 현장 동료였던 박건영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전태일에 대해서는 김진수 일이 터지기 전에도 조금은 알았죠. 얼마 안 된 사건인데도 입소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조금씩 들었어요. 그때는 누구든 빨갱이라고 잡아넣으면 끝이에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쉬쉬하고 뒷소문으로만 도는 얘기들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김용욱이 처럼 먼저 잘려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죠. 신문에 보도가 났지만 그 당시에 신문을 보는 사람은 제한적이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공원 입장에서는 신문을 볼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누가 오려갖고 오면 돌려보는 정도에 불과했죠.”

박건영은 훗날 김진수의 죽음으로 인해 쓰라린 좌절과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 사람으로, 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현재 영등포 산선 자료실에 보관돼 있는 자료로, 당시 한영섬유 노조 추진 세력들의 활동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 노사문제 세미나

The 4th Labor and management Seminar

-편직업계(쉐타 분야)를 중심으로

### 안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귀 회사의 번영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번에 본 회에서는 예고 없이 무단히 일어나는 편직업계의 노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사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하여 기업 발전과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데 미력이나마 협력하는 뜻에서 본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취지

본회에서는 이전에도 수차례 걸쳐 노사문제 세미나를 통하여 노사간의 협력관계를 조성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특히 편직업계의 아래와 같은 현실적 문제성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산업 발전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 오늘의 쉐타 분야 근로자는 왜 직장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가?
2.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은 임금 투쟁인가?
3. 훈련된 기술인들의 직장 이탈은 불가피한 것인가?

- 4. 범국가적인 면에서 편직 기술인의 해외 진출로 인한 외화 획득의 길은 없는가?
- 5. 스펀타업계의 문제점과 국제가적 문제를 총 망라한 새로운 번영에로의 돌파구는 없는가?

· 때 : 1970년 12월 6일(일) 오후 4시~6시

· 곳 : 영등포 노동회관(영등포역전 조광백화점 3층~성우예식장)

· 강사 및 연제 (1) ① 편직회사의 현실적 상황(경영자를 대표하여)

② 편직공의 현실적 상황

- 근로자를 대표하여 김 정 홍

(2) ① 편직계의 발전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 경영자 입장에서 김 경 락

② 편직계의 발전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 근로자 입장에서 김 용 옥

(3) ① 노사간의 협력의 중요성과 그 방향

- 전문가 입장에서 오 병 걸

주최 : 영등포-도시산업선교연합회

YONGDONGPO URBAN-INDUSTRIAL MISSION

전화 (62) 7972

전태일이 분신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영등포 산선에서 주최한 이 '노사문제 세미나'의 취지와 토론 항목에는 노사협조주의의 색채가 짙게 배어 있다. 이것은 물론 당시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종교계 시각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하려면 관할 경찰서 정보과장의 반공 교육 강의를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야 했던 시대적인 정황, 본연의 직분을 잃어버린 한국노총의 한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조차도 일상적으로 회사 측의 노조 파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렸던 당시의 원시적인 환경 등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위의 자료에서 '편직계의 발전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의 노동자 측 강사로 나선 '김용옥'은 물론 한영섬유의 노동자 김용옥과 동일 인물이다. 김용옥은 이후 전국섬유노동조합 서울의류지부 한영섬유 분회의 초대 분회장으로 선출된 인물이었다. 그가 당시 공개적인 세미나에서 편직업계 근로자 대표로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신념과 의지를 가졌던 인물로 보이며, 한영섬유 내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또한, 이 노사문제 세미나가 편직업계(스웨터 분야)의 '현실적 문제'를 주요 과제로 다룬 것으로 보아, 이때쯤에는 이미 한영섬유를 비롯한 편직 회사 노동자들이 따로 모임을 갖고 서울의류지부의 결

성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당시 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한 스웨터업체들은 종업원 수백 명 규모의 공장들로 영세업체라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일 1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법정 유급휴일도 지켜지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수많은 어린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짓밟히고 있었다.

이들은 위 세미나가 열린 지 2주 후인 1970년 12월 20일 일요일, 영등포 노동회관에서 전국 섬유노동조합 서울 의류지부를 결성하였다. 편직 업체를 중심으로 한 서울 의류지부의 초기 조합원은 140명이었다. 영등포 산선은 이들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어 서울의류지부 산하에 한영섬유, 다옥편물, 월성섬유, 양양상사, 마산방직 구로동 편직공장 등 5개 분회가 1970년 12월 20일에서 1971년 1월 10일 사이에 결성되었다. 이들 분회들은 결성 초기부터 노조 파괴 공작에 시달리며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으며, 분회 조합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회사로부터 노조 탈퇴 강요, 협박, 폭행, 부당해고 등에 시달려야 했다. 월성섬유와 영창실업에서는 직장폐쇄까지 단행하였고, 마산방직 구로동 편직공장에서는 회사 측이 분회임원들과 열성 조합원들을 불법난동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구속시키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한영섬유도 예외는 아니었다.



회오리 바람

1970년 12월 23일, 전국 섬유노동조합 산하에 서울 의류지부가 결성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점심시간에 고석민에게서 회사 근처 가갯방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김진수는 두 시간 잔업만으로 그날 작업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비슷한 전갈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차례로 탈의실에 모여 들었지만 진수는 아는 체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모이라는 것인지는 묻지 않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고석민이 김용욱 등과 어울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편직실에 아무도 없었다. 다만 일이 성사되기도 전에 그르칠까 두려워 짐짓 모르는 척할 뿐이었다. 김진수는 뒤늦게 탈의장에 들어온 박건영과 짧은 눈빛을 교환한 뒤, 편직실을 나섰다.

배당 김명덕이 편직실 문 앞을 지키고 서서 낮게 수련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탈의실 쪽으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편직부 기공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를 이미 감지하고 있는 눈치였다. 회사 측은 1970년 초 서울시에서 할당된 수출 목표를 초과달성한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김용욱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추진 세력들을 경계하는 한편 이들의 시도를 막아낼 대책을 강구 중에 있었다.

수출 목표 초과 달성 등 보세가공업체로서 한영섬유의 기세는 최고조에 올라 있었다. 회사는 수출 목표 초과 달성 기념으로 사원들을 중심으로 한 성대한 축하연 겸 망년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작 목표

달성을 위해 피땀을 흘린 노동자들에게는 수건 한 장 돌리는 것이 고작일 이 망년회의 실질적인 목표는 노동조합 결성 파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사문을 나선 김진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해 가을 함께 야간작업을 하면서 부쩍 가까워진 동료 박건영을 기다렸다. 충남 출신의 박건영은 김진수와 나이도 고향도 달랐지만, 처한 상황이나 생각에서 비슷한 면이 많았다. 두 사람 모두 격실격실 수선을 피우거나 쉽게 들뜨는 성품이 아니었다. 또, 둘 다 외아들이었고, 서당 출신이었으며, 현장에서 일벌레란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특히 박건영은 부지런하고 기술이 좋아서 한영섬유 편직공 중에서 제일 많은 월급을 받아 가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박건영은 회사 근처에서 고향 친구 서너 명과 자취를 했었는데, 특히 회사 동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한 톱 내라’고 성화를 부리곤 해서 애를 먹었다고 한다. 성격도 꼬인 데 없이 시원하게 트여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었다. 특히 김진수는 박건영에게 동향 친구들과는 다른 돈독한 우의를 느끼게 해 준 사람이었다.

김진수는 누구에게나 깎듯하고 예의가 발랐다. 그는 늘 웃는 얼굴이었는데, 소리 내어 꺄꺄 웃는 것도 아니었다. 크게 우스운 일이 있어도 어깨를 출렁이며 소리 없이 속웃음을 웃는 사람, 말없이 움직이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대부분의 공장 동료들은 그런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동료들은 그를 자기들보다는 좀 더 배운 사람, 한문

도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으로 평가했고, 착실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박건영은 김진수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진수는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한 사람이라 그런지,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인지 좀 남 다른 구석이 있었어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죠. 코도 오뎅하고, 이목구비의 명암이 뚜렷해서 남자들이 봐도 멋이 있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과묵하고, 점잖은 편이었지요.”

“어휴, 출대!”

목까지 올라오는 두터운 스웨터에 나일론 점퍼를 걸친 박건영이 이빨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먼저 들어가지 추운데 뭐 하러 기다려?”

“나도 금방 왔는데 뭐.”

싱긋 웃으며 짧게 대답하는 김진수 역시 곤색 돗바 안에 목까지 올라오는 올 굵은 스웨터를 받쳐 입고 있었다. 이들이 걸친 스웨터가 한영섬유에서 생산된 제품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20일날 의류지부가 결성됐다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오늘은 분회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

“마지막으로 전체 기공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겠지.”

이날 모임은 노동조합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 외에도 각

지역 모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하는 확대회의였다. 이들이 물론 노동조합 결성에 임하여 특정한 직함을 가졌다거나 공식적으로 한영섬유 노동자들에게 대표성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다만 이 자리는 시골에서 상경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출신 지역, 생활 권역별로 10~20명씩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김진수가 안양 친구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김진수가 당시 미조직사업장이던 한영섬유 내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조합 추진 세력에 속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러했듯이,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당위에 진지하게 수긍하는 한 사람의 노동자일 뿐이었다. 그는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측이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마음 속 깊이 분노하고, 그에 맞서 노동자 측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 즉 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사실 당시 한영의 많은 노동자들이 가졌던 생각도 김진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진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사내의 기류에 대한 한 옹호자에 불과하였으나, 선진 노동자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여러 요소들을 가진 인물이었다. 회사의 동료들은 말이 드물고 사색적인 편이었던 김진수의 언행에서, 평범한 노동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곤 했다. 그것은 안양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용욱을

비롯한 노조 추진 세력은 바로 그런 점에서 김진수를 안양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꼽았던 것 같다.

두 사람은 버스정류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어느 구멍 가게에 들어섰다. 이 집은 한영섬유 편직공들의 단골 술집으로, 본래 살림집이었던 것을 한길에 면한 방 하나를 터서 술과 담배, 과자 등 속을 파는 가겟방으로 개조하였다. 손님들은 대개 가겟방 구석에 놓인 낮은 좌탁에 앉아 술을 마시다 가곤 했지만, 오늘처럼 긴한 모임이 있을 시에는 이 집 주인의 양해를 얻어 방에 드는 경우도 있었다.

30명 가까이 모인 가겟방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방안을 둘러보니 편직공들뿐 아니라 가공부의 여성 노동자들도 열 명 남짓 참석한 것 같았다. 김용욱은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막 걸리를 가득 채운 잔을 높이 들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한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쪽 드십시오. 건배! …… 에, 이 자리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는 대충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드디어 전국섬유노동조합 서울의류지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하고 여기 있는 고석민 씨하고, 이장원 씨, 장은수 씨 이렇게 넷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참석했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흑사당하며 힘들게 일하는 편직업계 근로자가 우리 한영섬유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말로 소중한 감격적인 자리였습니다. 이제 상급 단체가 만들어진 이상 더 이상 머

못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돌아왔습니까. 사정하고, 건의하고 해 봐야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당장 새해부터라도 사용주가 우리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김용욱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사뭇 긴장돼 있었다. 이들 모두 회사에 대한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사람들이었지만, 말로만 듣던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회사 쪽에서 어떻게 나올까 자못 두렵기도 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하여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논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 대단한 변화요 진보였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리자들과 폭언과 폭력을 예사로 받아들이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것을 남의 밑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만 할 일로 생각했던 이들이 아닌가.

“근로기준법이니 노조법이니 하는 건 다 놔두고라도 우리 근로자가 우선 사람 대접이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석민의 말에 이어 장은수가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분들치고 조합 만드는 거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사실 이거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사람답게 살자는 권리 찾기 운동입니다. 울지 않는 아이 젖 줍니까? 요구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더 만만

히 봐요. 우선 기공들이 뭉쳐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고, 또 회사에 매인 몸이라 마음에 있어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자들이야 솔직히 어디 가면 밥 못 먹습니까?”

그런데 한 노동자가 던진 돌출 발언이 모처럼 달아오르는 회의 분위기에 돌연 찬물을 끼얹었다.

“나는 그래서 기공들이 더 뭉치기 어렵다고 봐요. 솔직히 우리 기술자들 중에 평생 회삿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대로 죽은 듯이 살다가 돈이나 좀 모아서 내 가게 차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대부분의 기공들은 막연하게나마 경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기계 몇 대 사가지고 독립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그만 하청 회사를 차린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훗날을 위해 가급적 회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어했다. 별다른 거래처를 개척하지 못한 독립 초기에는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서 주문을 받는 게 가장 쉽고도 유리한 방법이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건 현실화되기 어려운 꿈이었다. 경력이야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진득하게 노력을 기울이면 숙련자로서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먹고살기도 어려운 임금으로 따로 가게를 낼 수 있는 돈을 모은다는 것은 자기 몸 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

에게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얘기였다. 이날 가렛방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정작 회의를 소집한 김용욱 등은 추진력 있게 논의를 이끌어가지 못했다. 사소한 반대 의견이나 의사 진행 발언이 나와도,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험 부족이었다.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마음만 앞설 뿐, 아직 매사에 서툴렀던 것이다.

“아,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죽을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인정한 조합을 만들자는 일인데,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일은 더 꼬이기 마련이요, 거두절미하고 모날 모시에 일을 꾸밀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지 그 얘기로 들어갑시다.”

말없이 담배를 태우던 강씨가 두번 말했다. 진수는 눈을 크게 뜨고 강씨를 바라보았다. 서른이 넘는 강씨는 이십대 초반이 대부분인 한 영섬유 노동자들에게는 큰 형님뻘이었다. 내일모레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강씨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만도 놀라운 일이었다. 두 동생 학비를 대느라 진통제 한 알 살 돈도 아끼며 허리 휘게 일만 해 온 그가 아니던가. 진수는 망설이는 어린 동료들을 꾸짖기라도 하듯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그의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다. 강씨의 개입으로 이야기는 급진전되었다.

“맞습니다. 날짜부터 박아버려요.”

“우선 오늘 모인 사람이라도 가입원서들을 쓰십시오.”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12월 28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기습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그것을 위한 모든 실무적인 준비를 김용욱 외 3인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12월 23일자로 가입원서를 작성하였으며,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각자 자신이 속한 그룹의 동료들에게 이날 합의된 내용을 설명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일이었다.

“어땠냐?”

안양 가는 버스가 서는 버스 정류장까지 김진수를 배운 박건영이 불쑥 물었다.

“해 봐야지.”

“회사에서 가만히 있을까?”

“뒷집 지고 구경만 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이제 회사나 우리나라 올 때까지 다 온 거야. 이기든 지든 어떻게든 결말이 나겠지. 그런데 김용욱 씨 조심해야겠어. 공장장이 단단히 버르고 있는 눈치인데…….”

“며칠 전 조회시간에 우리 회사에 일하기 싫어하는 빨갱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유해풍이 슬쩍 김용욱 씨 쪽을 노려보는데, 정말 소름끼치더라.”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잘 받쳐 줘야지.”

“그나저나 성렬이한테 들었는데, 진수 너 결혼한다며?”

“에이, 아직 그쪽 집에 인사도 못 갔는데 결혼은 무슨…….”



“이번 설에 인사 한 번 가지 그래?”

“그렇까……?”

“아무래도 조만간 국수 먹게 될 것 같은데? 부조금 내려면 열심히 벌어야겠군. 하하하.”

박건영은 얼굴을 붉히는 김진수를 놀리듯이 말했다.

1970년 12월 28일 월요일 점심시간이었다. 한영섬유 식당에는 오전 작업을 마친 노동자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었다. 자리를 못 잡은 동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데도, 일찌감치 들어와 이미 식사를 마친 노동자들은 도통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느 때처럼 ‘엉덩이에 본드 붙었냐’, ‘이 식당 혼자 전세 냈냐?’ 하며 빨리 일어나라고 성화를 부리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별반 말이 없었고, 무언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듯 약간은 긴장된 표정이었다.

이윽고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빈 식탁이나 의자 등속을 구석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400여 명의 노동자가 식당 바닥에 바늘 찌를 자리도 없이 뻣뻣하게 포개 앉고 서고 할 무렵, 뒤늦게 사정을 눈치 챈 관리자들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식당문은 이미 닫힌 뒤였다.

전국섬유노동조합 서울의류지부 산하 한영섬유 분회 결성식은 신속하고 일사불란했다. 그동안 각 그룹 대표들을 통해 진행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던 노동자들은 모두 노동조합 결성을 고대하고 있었다.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날 식당에 모인 400여 한영



섬유 노동자들은 만장일치로 분회를 결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되었다. 주요 간부로 추대된 김용욱, 고석민, 이장원, 장은수 등에게 조합 설립 신고서 제출과 회사와의 협상 등의 실무적인 책임이 맡겨졌다.

그러나 회사 측의 대응은 노동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도 치밀한 것이었다. 한영섬유 사장 한익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하고 직장을 폐쇄하겠다는 위협으로 총 200명의 조합원을 12월 31일자로 강제 퇴사시켰다. 또 신정 연휴가 끝난 1월 4일에는 분회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분회장(김용욱) 등 4명의 분회 임원들을 취업 규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그와 동시에 과거에 폭력 사건으로 해고되었던 최홍인, 홍진기, 정진현 등 3명을 재입사시켜 조합원들을 위협하게 하고, 노조 탈퇴서를 받아오게 하였다. 이중에서 특히 정진현은 불량스러운 언행으로 오래전부터 한영섬유 노동자들 사이에서 기피되어 오던 인물이었다. 공장장 유해풍은 정진현의 그러한 면모를 심분 활용하여 조합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공장장 유해풍은 1971년 1월 5일 최홍인, 홍진기를 불러 신분 보호 각서를 써 주고, 이들이 노조 파괴 공작에 앞장서는 대가로 종업원 임금보다 후한 일당을 쳐줄 것을 약속하였다. 다음은 김진수 테러 사건이 발생한 후, 최홍인과 홍진기가 제출한 진술서의 일부로서, 특히 노조 탄압을 위해 실제 깡

패들까지 동원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먼저 정진현 군이 한영섬유에 들어온 동기부터 진술합니다. 70년도 12월달에 해고를 당했을 당시 저희들은 공장 측에 여러 차례 재직을 사정했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영섬유 노조 문제로 인하여 휴업이 되자 최홍인 도움으로 71년 1월 5일자로 공장장을 셋이 만나 노조 결성을 반대하기로 하고 1월 8일자로 진현군이 재직되었음. 그 다음날부터 홍진기, 최홍인, 정진현은 공장장 말씀이 노조로 인하여 휴업이 되었으니 다시 일을 하게끔 해달라는 진정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6일 낮 11시쯤 최홍인 집에서 배당 김영덕 씨를 만나 공장장이 준 진정서 용지와 교통비와 점심값 조로 일금 3,000원을 최홍인에게 전해 주었음을 진술합니다. 7일날 다시 김영덕 씨로부터 5,000원을 받아 분배하였습니다. 약 40명 정도의 진술서를 받아 공장장한테 넘겨 준 바 동시에 우리들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까 봐 공장장과 의논했더니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질 테니 일을 하지 말고 수위실에서 일을 수습하라는 지시를 받고 행동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대신파출소에 연락하여 대방동 깡패라는 진오와 창수라는 두 사람을 채용하여 쉼타를 짜지도 못하는 사람을 편직부의 명칭으로 1월 10일, 11일 2일간 출근케 하고 일인당 12,000원씩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sup>18)</sup>

12월 31일자로 퇴사당한 노동자들은 1월 10일 다시 재입사 처리되었으나, 노동조합 간부 4인이 해고된 상황에서 일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김용욱 등 해고된 조합 간부들은 공장장을 찾아가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반응은 냉담했다. 간부들은 하는 수 없이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내는 등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자 공장장은 최홍인, 홍진기, 정진현 등을 시켜 약 40명가량의 조합원들에게 억지 진술서를 받아내게 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노조 간부들은 난동자들이다’, ‘노조로 인하여 휴업이 되었으니 다시 일을 하게끔 해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유해풍은 최홍인 등 세 사람이 보다 자신감 있게 노조 파괴 공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변을 보장하는 각서까지 써 주었다. 다음은 공장장 유해풍의 각서 전문이다.

각서

성명 유해풍

상기 본인은 홍진기, 최홍인의 진술서에 대하여 차후에 신변에 어떠한 지장을 가져올 시에는 힘이 최대한 있는 데까지 보장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1971. 1. 5 유해풍<sup>19)</sup>

회사는 졸지에 매수된 불량배들이 준동하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작업장에서 두 명 이상이 모여 이야기를 나뉘도 당장 의심의 눈길이 쫓겼으며, 수위실에서는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을 24시간 감시했다. 조합 활동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동료들과 함께 퇴사 당했다가 재입사한 김진수는 착잡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었다. 회사에 매수된 자들이 공장장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꼴이란 가히 목불인견이었다.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돌아다녀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시비를 걸고 함부로 폭언을 일삼아도, 그들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뒤에는 지배인과 공장장, 그리고 사장이 있었다. 자칭 편직공인 그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별건 대낮에 술 마시고, 수위실에 붙은 방에 드러누워 자고, 술이 깨면 해사실에 모여 쑥덕거리고, 마음 약한 노동자들을 협박하여 노조 탈퇴서를 받아내고, 드라이버 자루로 제 손바닥을 척척 두드리면서 시위하듯 기계 사이를 돌아다니며 공포심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1971년 2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제3호를 통해 김용욱 외 3인에 대한 구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그에 불복, 곧바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반발한 노조 측은 쟁의 발생 신고로 맞섰다. 그러자 공장장 유해풍은 최홍인, 홍진기, 정진현 등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희가 새로운 노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들 세 사람은 갈등하는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조합 간부들을 음해하는 발언을 일삼고, ‘빨갱이 같은 저 놈들을 어떻게 민나. 우리들끼리 새 노조를 만들어 보자. 저 놈들만 몰아내면 회사에서도 적극 밀어줄 거다’라며 꼬드겼다. 말을 듣지 않는 편직공들에게는 일감도 불리하게 배당했다.

2월 중순의 어느 일요일, 이성렬이 모처럼 김진수의 집에 찾아왔다. 우울한 얼굴이었다. 그는 대뜸 술 한 잔 하자며 안양 중앙시장할매 순대집으로 진수를 끌고 갔다. 성렬은 술국이 나오기도 전에 사발이 넘치도록 막걸리를 따랐다.

“묵자!”

그는 새끼손가락으로 막걸리를 휘휘 젓더니 목젓을 출렁이며 그 큰 잔을 다 비워냈다. 그리고는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 묘한 얼굴로 내뱉듯이 말했다.

“진수야, 미안타! 내사 마 한영섭유 때리치떨란다. 저놈아들 지 세상 만났다고 설쳐 댕기는 꼴 터는 몬 보겠다. 진수 니한테 제일로 미안타.”

“.....”

“공장장이 일부러 일거리도 안 주고 기공들을 놀리면서, 살살 달래가 다른 공장으로 보내는 거 니도 알제? 어데 가면 돈 마이 준다, 자취방도 얻어 준다, 별별 희안한 소리로 기공들을 꼬시고 댕긴단다. 조합 간부들도 저리 다 나가자빠진 판에 이대로 가모 몇 명이나 버티겠노. 저놈아들 등쌀에 조합 탈퇴서 낸 사람이 한둘이 아이다

아이가.”

“.....다른 데 갈 데는 알아봤어?”

“모리겠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다. 며칠 폭 쉬고 난 답에나 슬슬 알아 볼란다. 진수 니도 일찌감치 맘 바꿔 묵고, 딴 데 알아보는 기종을 까다. 너그 결혼할려면 돈도 좀 모타놔야 할 거 아이다.”

“.....”

“우리 같은 놈들 몇 놈이 대가리 맞댄다고 뭐가 달라지겠노. 하여간에 저놈아들 하는 짓똥머리를 보라. 한영섭유에서 노조가 되겠나? 황이다 황!”

이성렬은 막걸리 두 되를 혼자 다 마시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는 진수의 손을 끝내 뿌리치며, 그날 열 번도 넘게 한 말을 마지막으로 되풀이했다.

“진수야, 니 알제? 일찌감치 맘 바꿔 묵어라.”

집까지 걸어오는 진수의 마음은 돌덩이를 안은 듯 무거웠다. 성렬의 마음은 능히 이해할 수 있었다. 편직공들의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가고 있었고, 기공부의 여공들도 벌써 삼분의 일 이상이 회사를 빠져나간 상황이었다. 동료들이 썰물처럼 직장을 빠져나가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분노와 부당하게 해고당한 조합 간부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진수를 한영섭유에 묶어 놓고 있었다. 깡패들까지 동

원하여 노동조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회사의 광적인 공작에는 그만 정나미가 떨어졌다. 돈 몇 푼에 매수되어 마치 사장이라도 된 듯 으스대는 버리지만도 못한 인간들의 행태가 혐오스러웠다.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들의 삶이 딱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무리 못 배우고 가난한 노동자들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이용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면서 뻗뻗한 오기가 발동하는 것이었다.

‘지은 죄도 없이 내 발로 왜 회사를 나가? 대한민국의 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도 죄란 말인가?’

며칠 전 퇴근길에 우연히 만난 노조 간부 고석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수야, 도와주라. 지금 조합원들은 저놈들 농간으로 누구도 믿지 못하고 사분오열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조합원이 몇 명이나 남게 될지 알 수 없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면 조합원들과 조합 간부들을 이어줄 다리가 필요하다. 성질이하고 운기만으로는 솔직히 힘에 부친다. 김진수, 도와줄 거지? 너처럼 생각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할 게 아니냐.”

김진수는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생각들을 몰아내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 작업장의 비명소리

3월은 왔지만 추위는 물러가지 않고 여전한 기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3월의 첫 번째 일요일, 모처럼의 쉬는 날이었지만, 김진수는 아침부터 외출 준비로 부산했다. 어머니는 입에 물을 머금었다 뿔어내길 반복하며 정성스럽게 아들의 양복을 다렸다. 동생 현숙은 방바닥에 있는 대로 옷가지를 늘어놓고 검색 양복 색깔에 맞는 셔츠와 넥타이를 고르다며 수선을 피워댔다. 진수가 자신이 골라낸 셔츠와 넥타이를 잡자코 반이들자, 현숙은 흡족한 얼굴로 부엌으로 나갔다. 오빠가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주기 위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것이다.

그날은 이주희의 오빠들과 점심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었다. 오빠들이 진수를 보기 위해 당시 이주희가 머물고 있던 신촌 이모네집에 올라온다는 것이다. 며칠 전 이주희는 진수를 찾아와 오빠들은 모두 자기편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도 온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혹여 편모슬하에서 자란 자식이라고 홀대를 받거나 않을까, 아들의 잘린 손가락을 보고 눈치가 달라지면 어쩌나, 근심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인사 정중허니 허고, 어른들이 주는 밥은 남기지 말고 싹 다 비우고 이?”

어머니는 대문 밖까지 아들을 따라와 두서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날이 추워요.”

그러나 어머니는 대문간에 오도카니 서서 아들의 모습이 골목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색 양복에 바바리코트를 걸친 진

수의 모습은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주머니에 찢러 넣은 아들의 왼손이 한없이 쓸쓸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날따라 일찌감치 세상을 등진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다.

어머니의 우려와는 달리 이날 이주희의 오빠들은 대체로 진수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다. 이주희는 그날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오빠들은 내가 막내딸이고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연로하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날을 잡자고 그랬어요. 사람은 착실하게 보이니까, 사람 하나 믿고 보낸다고들 했었죠. 그래서 진수씨도 이모네서 밥 먹고 가면서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날 잡겠다고, 날 잡으면 편지 보내마 하고 갔었거든요. 편지가 하마 올 때가 됐는데, 오겠지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렬 씨가 온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면 이주희의 오빠들에게 인사를 간 날부터 사건이 발생한 3월 18일까지 김진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김진수는 절친했던 이성렬이 한영섬유를 그만둔 뒤 해고 간부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조합을 탈퇴했거나 동요하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종의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활동 내용이 노조 재가입 원서에 도장을 받는 일이었는지, 자신과 가까운 안양 그룹 내 동료들 의견을 조율하여 더

이상의 노조 탈퇴를 막는 일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는 없다. 김진수가 테러를 당한 후 홍진기, 최홍인은 진술서에서 김윤기, 함성길이 회사 내에서 노조 재가입 원서를 받는 작업을 했으며, 역시 비슷한 활동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김진수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료 박진영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노동조합이 한 번 해산이 된 이후로 재결성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외부인<sup>20</sup>들하고 그룹별로 접촉이 됐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 많은 그룹별로 도장을 받고 그랬을 겁니다. 진수 이 친구도 그쪽에 가담을 해서 도장을 받고 다닌 것으로 기억해요. 내놓고 무슨 직위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했던 것은 아니고, 지역, 친구 등 연고 있는 그룹별로 모여서 자취방 같은 데서 모여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그때 진수는 안양팀을 이끌다시피 한 것 같고, 우리 충남 쪽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휩쓸렸죠. 가끔은 잘려 나간 사람들이 회사 철문 밖에 있다가 퇴근 하는 사람한테 술 먹자고 끌고 가기도 해서, 함께 울분을 터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김진수는 2월 중순경부터 3월 18일까지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측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으로서, 공장장과

최홍인, 홍진기, 정진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다. 그러면 여러 사람의 증언과 가해자들의 진술서, 사건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김진수에게 끔찍한 테러 행위가 가해진 그날, 1971년 3월 18일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1971년 3월 18일, 절기상으로는 봄이었지만 봄으로 치닫는 마지막 추위는 아직 편직실 안에 고스란히 드리워져 있었다. 한영섭유 노동조합은 이날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발생 신고를 했다. 회사 쪽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불응하자, 조합으로서는 마지막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다.

오전 10시경, 수위실 옆방에서 노닥거리던 정진현, 최홍기, 홍진기 등 세 사람은 공장장 유해풍의 출두 지시를 받고 다급히 사무실로 들어갔다. 공장장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공장장은 주춤주춤 다가오는 세 사람을 차례로 노려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오늘 노조에서 쟁의 발생 신고를 했는데, 알고 있었나?”

“.....”

“니들 대체 뭐하는 것들이야? 지금 방구석에서 희희낙락할 때야? 한 놈이라도 더 만나란 말이야! 술을 내야겠으면 술을 내고, 밥을 사야겠으면 밥을 사란 말이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든지 댄다고 하지 않았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유해풍은 어눌하게 변명하는 최홍인의 말허리를 싹둑 잘라버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희들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를 만들고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나!”

“예, 알겠습니다!”

개 꾸짖듯 세 사람을 몰아붙이던 유해풍은 정진현의 절도 있는 대답에 들끓는 감정을 억지로 가라앉혔다. 유해풍은 태도를 바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세 사람을 어련히 다루듯 살살 어르기 시작했다.

“이봐! 우리가 회사만 잘 되라고 이러는 것인가? 나도 알고 보면 봉급쟁이고 근로자야. 아님 말로 노조 생겨서 월급 많아지면 나도 좋아. 하지만 적어도 빨갱이 노조는 만들지 말자 이겨야. 니들이 빨갱이 같은 몇 놈들 쫓아내고 새 노조를 만들면, 내가 니들 모른 척 할 거 같애? 위원장에, 간부에 누구를 앉힐 거 같은가? 노조 간부자리 하나만 차고 앉으면 일 안하고 봉급 타먹는 건 식은 죽 먹기라구!”

“.....”

말없이 눈을 마주치는 세 사람의 얼굴은 새로운 기대감에 설레고 있었다.

“우선 노조 탈퇴 안 하는 놈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 니들이 노조에 가담 안 하면 안한 만큼의 혜택이 돌아가게 해 주겠다고 하란 말이야.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김윤기, 함성길이 같은 놈들한테는 자꾸 시비를 걸어서 혼찌감을 내 주라고. 그 다음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만약에 상황이 니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면 잠잠해 질 때까지 어디 멀리 휴가를 보내줄 테니까 뒷감당



은 나한테 맡기고 밀어붙이란 말이야. 내 말 알아듣겠나?”

“예! 걱정 마십시오!”

사무실에서 나온 세 사람은 다시 공장 수위실 옆방에 들어가 대책을 숙의한 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7, 8명의 노동자를 방으로 끌어들이며 ‘우리끼리 따로 노조를 하자’고 설득했다.<sup>20)</sup> 그러나 아침부터 쟁의 문제로 논의가 분분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들의 그런 이야기가 노동자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아침부터 공장장에게 호된 면박을 당한데다가 새 노조를 만드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노동자들도 없었으니, 세 사람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이래저래 점심을 걸러 출출해진 이들은 요기도 하고 오후 활동 계획도 세울 겸, 공장 밖으로 나가 술을 한 잔 하기로 하였다.

오후 3시경, 세 사람은 공장 정문 수위실을 통과하여 근처 가게로 갔다. 작업 시간에는 면회조차 안 되는 살벌한 곳이었지만, 그들의 발길을 막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가게에서 소주 두 병, 포도주 한 병, 막걸리 한 되를 마신 이들의 얼굴에는 서서히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김운수, 합성길이하고는 며칠 전에 한판 붙었으니, 오늘은 또 어떤 놈 버릇을 고쳐 놓을 거나?”

“김진수 어때?”

“김진수?”

“거, 왜 안양패거리 중에 이쁘장하고 허우대 멀쩡하게 생긴 놈 있

잖아.”

“아, 개? 맞아. 그 짜식이 그거 갈수록 뼈뺏겨져 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 뒤통무니로 조합 간부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어찌는지 냄새가 나긴 하는데, 말을 안 하니 영 속을 알 수 없단 말야.”

“원래 뒤가 구린 놈일수록 더 의뭉스럽게 구는 거야.”

최홍인과 홍진기의 말을 듣고 있던 정진현이 빈 잔을 내려놓으며 결론 내리듯 말했다.

“그래? 그럼 어디 오늘 그 자식 속 좀 들여다볼까?”

정진현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드라이버 자루로 손바닥을 척척 두드리며 가게를 나섰다. 입귀를 비트는 듯한 그 특유의 웃음이 음산하게 느껴지는 저녁이었다.

오후 5시 30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편직실 안은 잔업(夜業)을 위해 구내식당으로 몰려가는 편직공들로 인해 어수선했다. 김진수는 짜고 있던 부속을 다 마치고 밥을 먹으려고,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었다. 회사일이 바빠 아직 이주희에게 편지를 띄우지는 못했지만, 이주희의 오빠들을 만나고 돌아온 뒤 어머니와는 대략 5월경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얘기가 된 상태였다. 노조 문제로 겨울 대목을 놓친 터라, 진수마음은 바쁘기 그지없었다. 신희 몇 달간만이라도 이주희에게 궁색한 티를 내지 않으려면 오더가 없는 여름 비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스웨터 한 장이라도 더 짜야 했다. 방이야 시골집을 처분해서 마련한다 해도, 생활비는 지금부터 비축해 두는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그때 정진현, 홍진기, 최홍인이 불과해진 얼굴로 편직실에 들어섰다. 이들에게서 진한 술 냄새가 풍겨 나왔다.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직 편직실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서슬 푸른 이들의 기세에 질려 슬그머니 작업장을 빠져나갔다. 개중에는 뚱 뺏은 얼굴로 보이지 않게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김진수는 이들이 온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기계에 매달려 있었다. 최홍인이 턱짓으로 김진수를 가리키자, 정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드라이버를 탁탁 두드리며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김진수에게 다가갔다. 최홍인과 홍진기는 한 발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정진현이 하는 양을 지켜보며 비죽비죽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어이, 김진수 씨.”

김진수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굳은 얼굴로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정진현은 드라이버 자루로 김진수의 작업대를 툭툭 치며 이기죽 거렸다.

“어이, 김진수.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며? 노조에서 뒤를 봐준단가? 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밥도 안 처먹고 뭐하고 계시냐?”

정진현의 무례한 말투에 김진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김진수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냉담한 태도로 말했다.

“정진현 씨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서 투병 중인 김진수

정진현은 김진수 옆에 바짝 몸을 붙이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김진수!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너 오늘부로 노조에서 발 빼. 안 그러면…….”

마지막 말에 뜬눈을 들어본 정진현은 드라이버 자루로 김진수의 뒤통수를 툭툭 치며 씹어뱉듯 말했다.

“죽는다.”

“에이, 씨!”

김진수가 별떡 일어났다. 정진현을 노려보는 그의 얼굴은 상대에 대한 적의와 혐오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버리지만도 못한 놈!’

그러나 놈을 어쩔 것인가. 김진수는 참혹한 심정으로 아랫입술을 지그시 물고 돌아섰다. 정진현이 드라이버를 치켜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 씨벌놈이!”

“아아아아아악……!”

김진수의 처절한 비명이 작업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길게 이어졌다.



투쟁의 시작

김진수는 회사 직원<sup>29</sup> 왕성수에 의해 한영섬유에서 가까운 영등포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김진수는 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사고의 진상을 숨기기 위해 왕성수로 하여금 공원들끼리 다투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다. 육안으로 보기에 그의 상처는 그리 깊어 보이지 않았다. 왼쪽 귀 윗 부분에 작은 구멍이 나 있을 뿐이었다. 의사는 피가 흐르는 부위에 지혈제를 바르고 머리를 붕대를 감싸는 간단한 응급조치로 치료를 끝냈다.

그러나 그 작은 구멍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렀고, 김진수는 점점 의식을 잃어 갔다. 김진수는 다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때가 밤 11시 무렵이었다. 회사 측은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도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치미를 뚝 떴다. 세브란스 병원 516호 담당 의사 이현재<sup>29</sup>는 ‘공원들끼리 다투다 넘어져 조금 다쳤다’는 회사 측의 거짓말로 인해 제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접한 박건영이 제일 먼저 병원으로 달려왔다. 박건영은 안양 쪽 친구들을 통해 어머니와 둘째 누나에게 연락을 취했다. 밤늦은 시간,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진수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김진수의 왼쪽 머리와 귀 언저리, 눈 부위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올랐고, 왼쪽 눈은 완전히 감겼다.

“진수야, 진수야! 너 이게 웬일이냐?”

침대 위에 누어져 있던 진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용케 알아들었다.

“엄마, 맞아? 엄마, 맞아?”

“그래, 엄마여. 내 아들 진수 엄마여. 너 진수 맞지?”

어머니는 가물거리는 진수의 의식을 붙잡으려는 듯 자꾸 말을 시켰다.

“진수 맞아. 내가 엄마 아들이야…….”

“아이구, 진수야…….”

진수는 머리를 부여잡고 몸부림쳤다.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나 좀 살려줘요, 엄마…….”

그러나 속수무책이었다. 어머니는 진수의 왼쪽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소리 없이 흐느꼈다. 박건영은 고개를 돌리며 지그시 아랫입술을 물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든단 말인가!’

한편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김용욱은 영등포 산선과 전국섬유노동조합 서울의류지부에 긴급 연락을 취했다. 다음날인 3월 19일 아침, 김용욱과 영등포 산선의 김경락 목사, 안광수 목사, 서울의류지부장 박은양 등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였다. 담당 의사를 만난 이들은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그에 합당한 치료를 요청하였다.

김진수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 결과, 정진현의 드라이

버 날이 김진수의 머리 2.5cm 깊이까지 뚫고 들어갔음이 밝혀졌다. 수술 과정에서 사고 당시 부서진 뼈와 머리카락 등이 인출되었고, 염증이 생겨 고름이 많이 나왔다. 치료의 때를 놓친 김진수의 뇌는 이미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뒤였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뇌 전체에 염증이 퍼져 거의 희망이 없고, 비록 김진수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김진수의 생사가 기로에 놓인 그 순간에도, 한익하 사장<sup>24</sup>은 ‘저희들끼리 싸우다 일어난 일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회사가 자선사업 단체냐’는 뻔뻔스러운 말로 발뺌을 했다. 가해자의 살인 행위를 진두지휘한 공장장은 병원에 얼굴을 내밀기는커녕 ‘법대로 하라’며 배를 내밀었다. 최홍인 등은 김진수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3월 18일 저녁에도 평소 노조에 관심을 보여 온 노동자들에게 ‘까불면 죽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머니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어머니는 한영섬유 사장실로 쳐들어갔다.

“사장, 사장놈 어딴어? 이놈아, 내 아들 살려내라! 천금을 주고도 못살 내 아들을 니가 어떻게 했냐?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어!”

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의자고 서루고 화분이고 닥치는 대로 뒤집어엎었다. 한익하 사장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뱀다 호통을 쳤다.

“저건 또 뭐야! 야, 똥들 하고 있어? 빨리 와서 저 노인네 좀 끌어내지 못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재수 없게…….”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천벌을 받을 거다, 이놈아…….”

어머니는 직원들에게 사지를 들린 채 질질 끌려가며 소리쳤다. 그러나 그것은 가련한 어미의 힘없는 절규였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할 곳은 하늘 아래 한 곳도 없었다. 이제 막 첫아이를 낳은 둘째딸과 양장점에 몸이 메인 막내딸은 눈물밖에 보낼 것이 없었다. 가해자 정진현만이 노량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뒤늦게 이성렬에게 소식을 들은 이주희가 달려왔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잠깐 의식을 회복한 진수는 주희를 알아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주희는 진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진수씨, 이게 뭐야! 날 받아온다고 해놓고……. 꼭 살아야 해. 내가 매일매일 와서 지켜 줄게.”

하지만 이주희는 그날 이후 두 번 다시 진수를 만날 수 없었다. 다음날 진수의 담당 의사를 찾아온 이주희의 오빠들은 김진수가 (생존할)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이주희는 그날로 홍제동 큰오빠의 집에 감금됐다. 김진수는 죽을 때까지 이주희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가 다시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어머니, 그 일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는 김진수가 묻는 ‘그 일’이 의당 노조 문제일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지체 없이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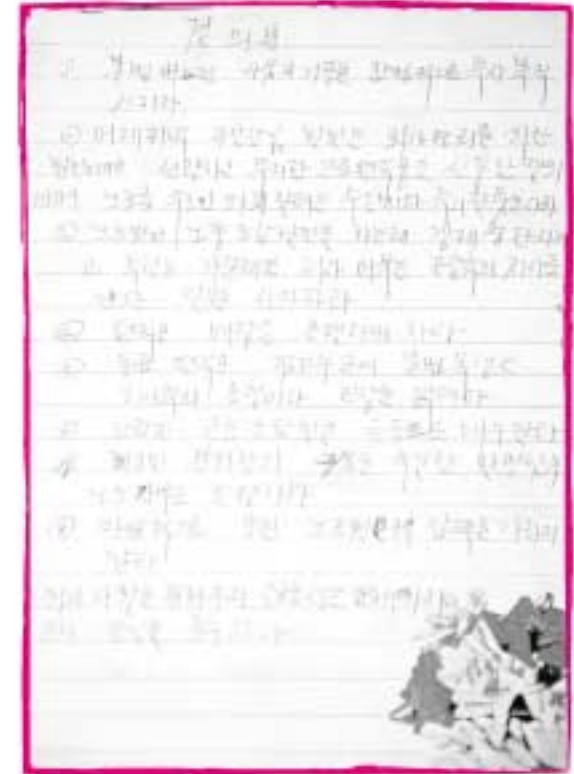
일찍 남편을 여윈 후 삶의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잃고서 망연자실한 김진수의 어머니

“잘 되었어.”<sup>29)</sup>

한편, 한영섬유 노동자 150여 명은 사건 다음날인 3월 19일 1시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 회사 측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사건의 진상 해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농성을 벌였다. 농성 노동자들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 ① 불법 해고된 4명의 조합 간부를 즉시 복직시킬 것.
  - ② 노조원이 노동조합 발언을 하는 데 강제 중단시키고 폭행을 가하려는 처사는 공장 측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안다. 잘못을 사과하라.
  - ③ 동료 편작공 김진수 군에 대한 불법 폭행은 회사 측의 소행이다. 진상을 밝혀라.
  - ④ 단합된 조합원을 금품으로 매수하지 말라.
  - ⑤ 해고된 분회장 등 3명을 한영섬유 유일한 노조 간부로 인정하라.
  - ⑥ 자발적으로 뭉친 노조원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라.<sup>29)</sup>
- ※ 위의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시는 언제까지든지 농성을 풀 수 없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농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상급 단체인 전국섬유노동조합의 냉담한 반응에 맥이 빠진데다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서울의류지부 산하 각 분회들마저 제각기 다른 수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적절한 공동 대응을 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노조 간부들은 애가 타게 백방으로 뛰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



김진수 사건에 대한 (주)한영섬유 노동자들의 결의문(71년 3월 19일)

지 않았다. 김진수 사건에 충격을 받은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한창 때 500명 가까운 종업원 수를 자랑하던 한영섬유에는 이백 명 남짓한 노동자만이 기계를 지키게 되었다.

이 사건을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회사 측의 살인 만행으로 규정하고, 각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한영섬유의 노조 파괴 공작에 정면으로 대응했던 것은 영등포 산선을 비롯한 소수의 종교 단체와 학생들이었다.<sup>27)</sup>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노동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들은 한영섬유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한편,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전국섬유노조와 한국노총의 각성을 촉구했다.

2차에 걸친 수술에도 김진수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2차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흔들었다.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의 머리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온 어머니는 며칠 사이에 뼈만 앙상한 백발의 늙은이가 되었다.

4월 7일, 영등포 산선과 각 종교 단체는 한영섬유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각 부 장관, 한국노총위원장, 17개 산업 노조위원장, 관할 경찰서장, 각 일간 신문사 및 언론 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4월 27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5월 2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부 당국은 이 사건이 전태일 분신 사건과 같은 사회 문제로 비화될 것을 염려하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노동청은 당장이라도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 같은 제스처를 쓰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25일째인 4월 10일, 처음으로 이 사건을 노동조합 운동과 관련지어 보도한 것은 한국일보였다. 김진수 사건이 기사화되자 여론의 점화를 두려워 한 한국 노총과 검찰, 경찰은 마지못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진상 조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노총(위원장 최용수)은 이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이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내용은 한국노총 1971년 '사업보고서' 중 조사통계 활동 보고의 각종 사고 진상조사란에도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섬유노조 서울의류지부 한영섬유분회 김진수 상해치사사건 조사 (71. 4. 10)

한국교회도시산업문제협의회로부터, 한영섬유주식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종업원 김진수가 상해를 입고 중태에 빠져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 즉각 섬유노조와 합동하여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결과 본사건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노총은 본 사건의 정확한 진상파악 및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회사측의 충분한 보상을 관계 당국에 요청하였다.<sup>28)</sup>

이 같은 노총의 발표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발생한 일까지 책임



을 지고 보상해 준다면 기업이 무슨 자선사업하는 곳이나' 고 강변해 온 회사 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회사 측은 조합원들의 항의를 일시 잠재우기 위해 4월 8일자로 노조 간부들의 복직에 합의하는 한편, 공장장 유해풍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지배인 김지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지화는 '김진수는 노조 운동을 할 위인이 못된다. 종업원들 개인 일에 회사가 말려들었다' 며 이 사건과 노조 운동을 결부시키려는 시각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비열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사주한 정진현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했다.

또, 노동청 영등포 주재 김모 근로감독관은 당시 사건을 취재하려는 신동아 기자 김민남에게 "김진수 사건은 관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했고, 우리는 동태 파악만 하고 있다."<sup>29</sup> 고 대수롭잖게 받아넘겼다고 한다. 사건 이후, 감독 부실로 처벌된 근로감독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나와 점검한 일도 없었다. 노동청에서 근로 조건이나 작업장 실태 조사를 하기는커녕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진수 사건과 회사 측의 노조 파괴 공작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 사건을 직접 취급한 경찰,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 피고인(정진현)은..... 전시 편직실에서 동사 직공인 피해자 김진수 등 23명에게 노조 결성을 하지 말아달라고 권유하다가 동인(同人)이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동소에 있던 흥기인 드라이버로 동인(同人)의 두부를 찔러 상처(傷處)를 입한 것이

다' 라고 하면서도, 소외(訴外) 공장장 유해풍에 대해서는, '노조 방해 내지 파괴 지시를 정진현 등에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지시와 정의 상해 치사 행위 간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해 버렸다.

사건 당일부터 김진수의 병실을 지켜 온 박건영은 진수 어머니 앞에서 '치료비는 걱정 말라' 며 달착지근한 말로 위로하다가 경찰 앞에 가면 전연 탄소리를 해대는 회사 측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다. 한국 노총과 노동청의 무책임한 태도에는 더더욱 치가 떨렸다. 억울하게 죽은 노동자의 권익을 노총이 앞장서 찾아주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누굴 믿어야 한단 말인가.

그럴 즈음,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청계피복 노조 최종인, 이승철이 병원을 찾아와<sup>30</sup> 한국노총의 투쟁을 촉구하는 항의방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건영은 그 제안에 적극 동조했다. 김진수와 가까웠던 안양 친구들을 찾아가 분통을 터트렸다.

"니들 정말 이럴 수 있냐? 친구가 죽어 가는데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노동조합 도장 받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노총에서 뭐라는 줄 알기나 해? 노동운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이란다. 한쪽에선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그게 책임을 지고 있다는 놈들 입에서 나올 소리야? 어서 가자! 우리래도 가서 항의를 해야 하잖아!"

4월 15일, 박건영을 비롯한 10여 명의 조합원은 김진수의 가족과 함께 소공동에 있는 한국노총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항의 방문했다.

조합원들이 입은 러닝셔츠에는 ‘한국노총 규탄한다’, ‘김진수를 살려내라’ 라고 써 있었다. 그러나 노총 위원장 최용수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자리를 지키던 직원들은 아예 사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sup>30)</sup> 울분이 터진 박건영과 몇몇 조합원들은 집기를 부수며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노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건물 주변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이날 박건영은 항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피해 문을 박차고 나오다가 오른손 동맥이 끊기는 큰 부상을 입었다. 박건영은 병원에서 한달 정도 치료한 뒤 곧바로 구속 수감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김진수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그날은 5월 16일이었다. 김진수의 죽음을 전해들은 노조 간부들은 침통한 얼굴로 ‘차라리 노조 운동을 시작한 우리가 죽었다’ 고 되뇌는 뿐이었다.

유가족과 영등포 산선 실무목사, 노조 간부들은 회사 측에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단체 협약 체결, 그리고 300만 원의 보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50만 원 이상 줄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 고 버텼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마저 끝나버리자 행정 당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김진수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던 노동청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 버렸다.

분노한 유가족은 김진수의 시신을 냉동실에 안치한 채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영등포 산선의 김경락, 안광수 목사는 6월 10일

김진수의 죽음이 노동 운동과 무관하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두 개의 결정적인 자료를 내놓았다. 이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하나는 정진현과 함께 노조 파괴에 앞장선 최홍인과 홍진기 씨의 진술서였고, 다른 하나는 공장장 유해풍이 이들 세 사람에게 써준 ‘각서’ 였다.<sup>32)</sup>

학생들의 지지 방문과 항의시위가 줄을 이었다. 전태일 열사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넋이 나간 어머니를 찾아와 위로와 함께 유가족의 굳건한 투쟁을 당부했다. 6월 15일, 유가족 4명은 비장한 각오로 거리에 나섰다. 광화문 지하도 입구에 도착한 이들은 동양방송사 앞에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억울하게 죽은 김진수의 사연을 호소하는 연좌 농성을 벌였다. 불과 한 시간도 못돼 경찰에 연행된 유가족의 처절한 시위 광경이 다시 신문에 보도되자, 마침내 회사 측은 협상에 응했다.

1971년 6월 19일, 영등포 산선 사무실에서 열린 연석회의를 통해 회사와 유족 양측은 ‘이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 측이 져야 한다’ 는 데 동의하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서는 양측 모두 종전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① 위자료-75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 ② 치료비-1,067,910원 일체를 회사 측에서 부담한다.
- ③ 장례비-15만 원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12만 원은 산선과 기독교

단체에서 부담한다.<sup>39</sup>

1971년 6월 25일 오후 3시. 태양이 따갑게 내려찍는 세브란스 병원 시체 안치실 앞뜰에는 보기 드문 장례식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사인(死因)을 밝혀라’, ‘차라리 철폐하라, 허울 좋은 노동 조건’, ‘김진수의 죽음은 제2의 전태일 사건’, ‘내 생명 다시 살리’ 등의 만장을 앞세운 2백 50여 명의 조객들은 찬송가 495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는 것을 볼 때에’를 부르기 시작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 있네 검은 구름 없으니  
대낮보다도 더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장송곡이 뜨거운 지열을 삼키며 메아리쳤다. 이윽고 조사가 낭독되었다.

“노동투사 김진수씨! 당신은 기어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작년 11월 평화시장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씨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뼈저린 유언을 우리 모두에게 남기고 분신 자결하였을 때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어둡고 더러운 현실과 철저



동아일보 (71년 6월 26일)

히 투쟁하여 300만 노동자들의 지옥과 같은 생활고를 기어이 해결하고자 말겠다고 그의 영전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말이 끊어지고 가슴이 막히고 있습니다.

……김진수씨여! 당신의 어두운 죽음은 이러한 모든 저주받을 죄악들의 희생이었습니다. 당신의 억울한 죽음은 흑사당하고 탄압받는 우리 300만 노동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죽음은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온갖 기만적 구호와 환상과 위선의 죽음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서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장례식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도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다.

“여기 당신의 어머니가 울고 계십니다. 일생을 통해 온갖 수모와 가난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당신 하나를, 당신의 밝은 내일 하나를 애써 믿으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견뎌 오시던 당신의 어머니가 절망 속에서 오염하고 계십니다. 보십니까? 김진수씨여. 여기 당신의 벗들이 당신의 원통한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를 생각하고 노동으로 굽게 주름진 볼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조사가 낭독되는 동안, 이성렬과 안양 친구들은 감옥에 있을 박진영과, 정진현, 그리고 홍제동 집에 갇혀 세브란스 병원 굴뚝만 쳐다

보고 있을 이주희를 생각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아니었던 자신들의 삶과,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던 김진수의 죽음을 생각했다. 그들이 선 뜨거운 땅에 굵은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0만 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노동운동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기 전에는 어떠한 비통한 눈물도 하물며 어떠한 절실한 조사도 당신의 부릅뜬 눈을 감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운하였던 노동투사 당신을 영결하는 자리에 다시 모여, 우리의 그 동안의 민권운동이 불성실하였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짐합니다. 300만 노동자의 원한스런 것과 억울한 것을 한 몸에 안고 쓰러진 당신의 시신 앞에서, 당신의 식어가는 시신 앞에서 우리는 다시 기업가에게, 정부에게, 노총에게, 지식인에게, 그리고 전 사회를 향하여 항의합니다. 당신의 썩은 육신을 대신하여 절규합니다. 노동자들을 이 이상 죽음 속으로 몰아넣지 말라!”<sup>34)</sup>

구호와 함께 장례식 행렬이 요동하기 시작했다. 2백50여 명의 조객들은 세브란스 병원 앞길로 뛰어나갔다. 이성렬도, 안양의 친구들도, 노조 간부들도 심호흡을 하며 제각기 들고 있던 만장을 힘껏 움켜쥐었다.

“노동운동을 탄압 말라! 현재의 모든 노동운동 탄압을 즉각 중지하

라!”

“김진수 살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가려내어 모든 관련자를 색출, 처단하라!”

“이 사건을 암장하려 한 악덕 경찰 즉각 처단하라!”

“언론은 약자의 편에서 김진수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정직하게 보도하라!”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음 속으로 몰아넣지 말라!”





주석

- 1) 큰 누님 김순례(정자)의 경우,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출가했다
- 2) 둘째 누님 김현자와 여동생 김현숙의 경우
- 3) 손을 놀리는 기운, 손재주
- 4) 현 지사초등학교
- 5) 현재는 오수면
- 6) 현재의 대농(주)
- 7) 현재 안양 5동
- 8) 김진수는 1년여 동안 안양공고에 다니다가 중퇴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안양공고에는 중퇴한 학생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 9) 주식회사 고려특수도자기로 추정됨. 현재 그 타일 공장은 없어졌지만, 당시 김진수가 다닌 타일 공장이 하드보드 공장 바로 옆에 있었다는 어머니의 증언과 당시 고려특수도자기가 있었던 위치가 일치한다
- 10) 횡(橫)으로 조작하는 편물기(編物機)의 일본말
- 11)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북부동 813
- 12) 현 LG전선
- 13) 가명. 실명을 원치 않는다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가명을 사용함
- 14) 미국명 존 트리솔러니
- 15) 김진수를 말함
- 16) 2000년 4월 3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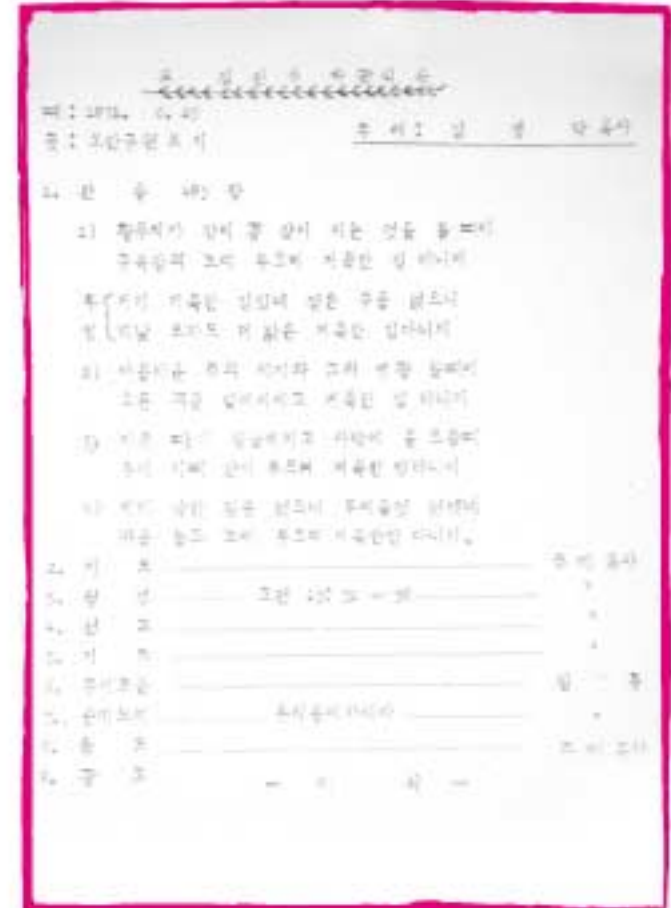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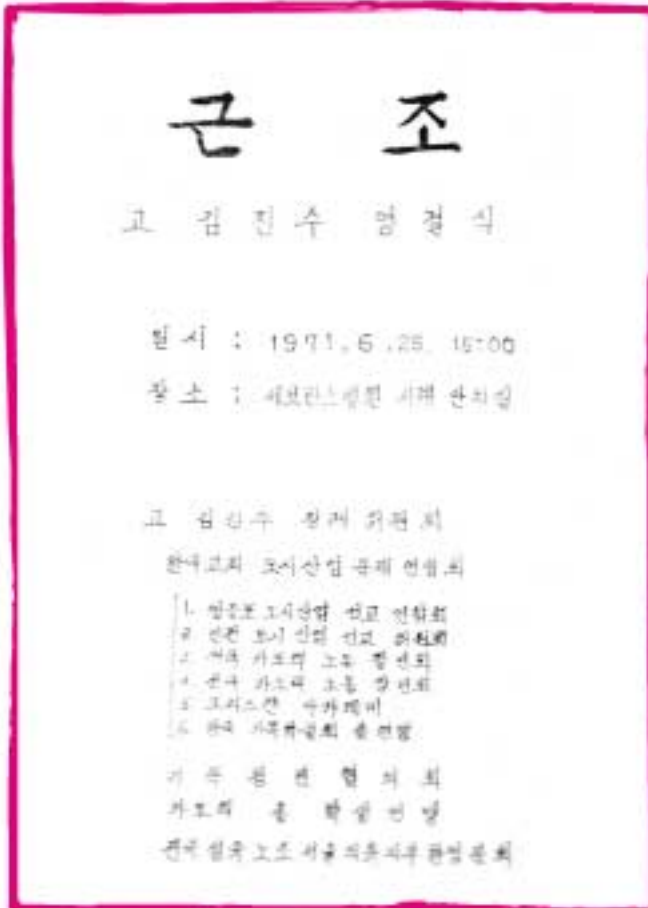
- 17) 이하 영등포 산선으로 줄여 씀
- 18) 홍진기와 최홍인의 진술서. 유족들이 제출한 '명예회복 관련 자료' 중에서
- 19) 공장장 유해풍의 각서. 유족들이 제출한 '명예회복 관련 자료' 중에서
- 20) 해고된 간부
- 21) 김민남, '한 젊은 근로자의 죽음', 신동아 1971년 8월호
- 22) 회사 운전 기사
- 23) 당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과장
- 24) 한영섬유 노조위원장 정덕진 씨에 의하면 한영섬유(주)는 2002년 5월 경 폐업하였고, 한영섬유가 있던 자리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한영섬유 사장 한익하는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5) 김민남, '한 젊은 근로자의 죽음', 신동아 1971년 8월호
- 2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풀빛,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
- 27) 서울대의 「자유의 종」과 「활화산」, 이대의 「새날」 등 학생 신문을 중심으로 한 당시 학생운동기들은 이 사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여론을 환기시키며, 김진수의 장례식을 성공적인 집회로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 29) 김민남, '한 젊은 근로자의 죽음', 신동아 1971년 8월호
- 30)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장기표 씨는 김진수 사진 소식을 접하고,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청계피복노조 최종인, 이승철 씨를 만나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유족들과 현장 동료들의 투쟁을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 31) 한영섭유 동료 박건영의 증언. 그러나 당시 이들의 항의방문을 제안했던 청계피복 노조 최종인 씨의 증언 내용은 조금 다르다. 그에 의하면 항의방문을 갔던 동료들이 투쟁 방식에 서툴고, 감정이 너무 격한 나머지 위원장실이 아닌 엉뚱한 방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다
- 32) 부록 참조
- 33) '명예회복 관련 자료'
- 34) 장례식에서 낭독된 학생 대표의 조사

## 부록

장례식  
구시대 진술서  
공장장 각서





## 조사

노동투사 김진수씨! 당신은 기어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작년 11월 평화시장의 청년노동자 전태일씨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뼈저린 유언을 우리 모두에게 남기고 분신자결하였을때 우리는 두번 다시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어둡고 더러운 현실과 철저히 투쟁하여 300만 노동자들의 지옥과 같은 생활고를 기어이 해결하고자 말겠다고 그의 영전에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죽음을 공모타살로 규정하고, 기업주, 정부, 노총, 지식인, 모든 사회인을 그 5대 살인자로서 고발하였던 우리는 다시 오늘 당신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다시 5대 살인집단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의 삼풍섬유에서는 소녀직공 한 사람이 혹사에 시달려 숨졌습니다. 신진자동차노조사건에서는 분회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가 모진 고문을 받았읍니다. 그 뿐입니까? 전태일씨의 분신 이래로 조선호텔노조원들의 집단분신기도 등등 이루 다 기억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속발하였으며, 그 밖에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들 속에 묻힌 참혹하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실로 우리 300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생활은 커녕 동물적인 생존까

지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며, 노총의 일부 간부를 비롯한 노동귀족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참다운 노동운동가들이 지금 걷고 있는 것이며, 이 어두운 현실을 외면하는 종교가, 언론인 등 지식인의 냉담은 비인간적인 것이며, 이러한 모든 현실을 초래한 정부시책의 반대중성은 범죄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진수씨여! 당신의 어두운 죽음은 이러한 모든 저주받을 죄악들의 희생이었습니다. 당신의 억울한 죽음을 혹사당하고 탄압받는 우리 300만 노동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죽음은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온갖 기만적 구호와 환상과 위선의 죽음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어머니가 울고 계십니다. 일생을 통해 온갖 수모와 가난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당신 하나를, 당신의 밝은 내일 하나를 애써 믿으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견뎌 오시던 당신의 어머니가 절망 속에서 오염하고 계십니다.

보십니까? 김진수씨여, 여기 당신의 벗들이 당신의 원통한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를 생각하고 노동으로 굶게 주름진 불

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생전에 서로 알지 못했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와서 분노와 비탄에 사로잡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0만 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노동운동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기 전에는 어떠한 비통한 눈물도 하물며 어떠한 절실한 조사도 당신의 부릅뜬 눈을 감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운하였던 노동투사 당신을 영결하는 자리에 다시 모여, 우리의 그 동안의 민권운동이 불성실하였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짐합니다. 300만 노동자의 원한스런 것과 억울한 것을 한 몸에 안고 쓰러진 당신의 시신 앞에서, 당신의 식어가는 시신 앞에서 우리는 다시 기업가에게, 정부에게, 노총에게, 지식인에게, 그리고 전사회를 향하여 항의합니다. 당신의 썩은 육신을 대신하여 절규합니다,

노동자들은 이 이상 죽음속으로 몰아넣지 말라!

노동운동을 탄압말라! 현재의 모든 노동운동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김진수살해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가려내어 모든 관련자를 색출, 처단하라!

이 사건을 암장하려 하였던 악덕경찰 등을 즉각 처단하라!

언론은 김진수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보도하고 그 외의 모든 노동운동탄압사건을 정직하게 보도함으로써 약자의 편에 서서 억울함을 밝히는 사명을 다하라!

1971년 6월 25일

##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부르짖고 불의와 악의 세력에 항거하여 그의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교회일진대, 오늘 한국교회는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안일한 현실도피 상태에서 꿈꾸고 있는 사실임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대중이 노동자들이며 모든 금력과 권력의 거대한 힘 앞에 무참히 인권을 짓밟히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들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요 화려한 성막 속에 사는 선택된 자들의 문제는 더우기 아니란 말인가. 파벌싸움과 이권다툼만이 교회의 관심사며 교세팽창만이 그 목적이란 말인가. 이러한 오늘의 한국교회는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교회들이여 진정 교회로 있기를 원하는가. 지금 이 시간 귀청을 찢는 강도 만난 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말라. 이 무죄한 자의 억울한 주검 앞에서 이 참혹하고 악랄한 살인행위에 동참한 사실을 깊이 참회하라. 이 길만이 한국교회가 진정 교회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채찍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 행정당국에 보내는 메시지

법질서와 복지국가를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피흘리며 쓰러져간 김진수씨의 외마디 비명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헌정 23년사의 자축의 의미로 이 글을 선물하고 싶다. 악법도 법이라는 유치한 변명으로 연약한 학생이나 근로대중은 마구 잡아가둬도 배부른 기업가의 법질서파괴에는 당신들은 어떤 태도로 임해 왔는지 생각해 보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헌법을 우리는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의 절규를 우리의 처절한 외침을 듣는가? 안듣는가?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저개발국가나 망국의 일로를 걷고 있는 나라일수록 현저한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중진국이라는 기상천외의 미사여구 창조에 급급하지 말고 가난한 대중, 음지에서 신음하는 저임금노동자의 굶주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라!

부의 조성에 필요한 기회와 정치, 경제, 사회 등 온갖 제도의 규제와 사회참여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항상 복종과 피지배적인 사회에서만 살아온 노동자에게 노동은 인격의 일부라는 감언이설을 서슴치 않고 뺏은 부패의 탐관오리들이 노동자가 깔린 발판 위에 서서 오늘도 열심히 침을 튀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기아, 질병, 무지에서 탈피하는 1차적 근대화를 원하고 있음을 밝힌다. 한국적인 부조리의 근대화, 빌딩, 관광호텔로 전시되는 3차적 근대화에서 조국이라는 단어를 남발하고 있음을 반성하라. 당국은 아직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불합리한 경영조직이나 부당한 이익을 조장하는데 눈감아버리고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무시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경제성장, 경제성장, 구호처럼 오르내린 경제성장은 오적을 탄생시켰고 전태일과 김진수, 아니 모든 근로대중을 무참히도 밟아버렸다. 피를 빨린 빈자, 눌린 자인 근로대중은 이제 최악에 도달했음을 밝혀 둔다. 우리에게 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것은 인간다운 생활보장임은 당신들이 더욱 더 알고 있으리라.

## 경영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현대는 경영의 시대다.

경영은 인류공동의 복지를 향한 모든 노력의 집결체다. 따라서 결코 한 가지 입장에서 운영되어 질 수 없다. 이것은 역사적 요청이며 세계적 조류이다.

요즘 한국의 경영자들은 한국의 진정한 진보와 세계의 요청에 역행하는 가장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 불의와의 타협과 일체의 발전적인 요인을 저해하는 이기주의적 행위의 비대가 그것이다.

이것은 존엄한 인간을 죽이는 무서운 잔인성을 낳게 했다. 곧 전태일의 죽음 그것이야 지금 막 운구되려는 김진수의 희생이 그것이다. 한국의 근로자와 기독교학생들은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경영은 경영자와 일부 권력층만이 행사하는 특권이 아니요 전국민과 근로자들이 부여한 숭고한 의무인 것을 경영인들은 자각하라.

근로자와 경영자는 공동운명체이다.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노동조건의 시정 그리고 생활이 안정없이 경영자는 있을 수 없다.

경영자들은 부여받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과 항상 근로자

와의 공동운명체로서 모든 것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언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한 인간이 되고져 이 사회의 비정에 분신자살로써 항거한 한 기록 한 노동자의 외침이 채 식기도 전에 또 다시 너무도 안타까운 좌절감을 던지는 김진수선생의 죽음은 이 시대의 무서운 암운에 처절히 짓밟히고 있는 소시민의 인권을 묵묵히 대변하고 있다.

민주사회는 소시민을 위한 제도일진대 소시민을 소외시키는 사회 풍토를 가지고 민주 운운한다는 것은 소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언어도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혹하게 비인간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지각한 기업인의 부의 축적의 희생물이 될 수 없으며 경제정책의 도구가 될 수 없는 바이다.

민주주의는 여론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고 이 여론의 형성은 언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기에 언론인은 한 사회를 바로 이끌어 나갈 엄숙한 사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붓이 강직하고 꺾이지 않는

시대에는 소망하는 정의가 성취됨을 보았고 붓이 약하여 꺾이는 시대에는 어둠과 좌절의 신음이 있었음을 잘 안다.

진정 붓이야말로 그 시대의 등대요 정의의 파수꾼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언론인은 약하디 약하고 꺾이다 못해 굽어 아부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고 보면 정영 이 시대는 절망 할 수 밖에 없다.

정의로운 한 노동자의 죽음을 기껏 모퉁이에 조그맣게 취급하는 웅색함으로 눈을 현혹시키는 유행물의 칼라판 대형화보나 실는 언론인으로 타락했어야만 하는가!

언론인 여러분!

건전하고 바람직한 시민계급의 형성이야말로 민주한국의 생동할 수 있을진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유린당하는 노동자들의 호소 앞에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낄 수 없다면 어떻게 언론인을 사회의 묵탁이라고 자부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의 이념이 사멸화하는 이 시대에 언론인은 능동적인 자세로 올바른 사회여론을 과감히 조성하고 비판의 기능을 최대로 살려서 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아낌없이 발휘하길 바라며 동시에 김진수 선생의 죽음을 승화시켜 핍박받는 노동자들의 해방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길 바라는 바이다.

## 학생에게 보내는 메시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은 자를 내지 않기 위한 결단의 자리에 그를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결단의 자리에 그를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다.

지금도 고 전태일씨의 죽음은 그때의 충격으로 우리의 가슴을 치고 있다. 그가 그와 함께 노동문제로 싸워 줄 대학생 친구를 필요했다는 소식에 우린 일찍 그의 친구가 되어 주지 못했음을 얼마나 안타까워 했었던가?

그가 몸을 태울 때의 그 불꽃같은 분노와 한숨의 연기로 우리 같이 한숨짓고 분노했던 것은 한낱 일시적인 젊은 순정이고 정열이었던 말인가?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때의 의분이 아직도 우리의 피 속에서 끓고 있음을 서로의 눈망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눈을 번득이면서 찾고 있는 것이다. “자유란 피를 먹고 자라는 꽃”이다. 지금 피는 뿌렸지만, 그 위에 꽃을 피워 줄 사람은 누구인가? 일차적인 투쟁자는 물론 노동자이다. 그러나 이 험한 투쟁에서 그들의 주먹을 같이 쥐고 싸워 줄 전우가 필요한 것이다. 노동문제는 순전히 노동자만

의 문제라고 단순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가? 학생이 노동문제에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자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기본적인 우리의 요구와 희망을 외면하게 하고 우리의 고생을 당분간은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조국의 근대화”란 엄숙한 역사적 과제는 지금 남의 빗더미와 노동자의 신음 위에 세워지는 거대한 와우 아파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근대화란 미명으로 살핀 것은 동빙고의 오적들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 오늘은 22년전의 상처가 찢려진 허리의 아픔이 더욱 새삼스러워지는 6·25이다.

오늘 우리가 소스라쳐 놀라게 되는 것은 다수의 노동자의 핍박받고 있는 허물뿐인 우리의 민주주의는 바로 공산주의의 붉은 마수가 거침없이 뺏아나갈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앙큼스럽게 장식하고 있는 일본과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북괴라는 이중의 적에 대항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들을 격퇴하고 진정한 근대화된 조국을 이룩하는 길은 “공장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악질적인 기업풍토를 뿌리뽑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임을 알아야겠다. 죽은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피 위에 탐스런 꽃을 피워야겠다는 엄숙한 사명을 느낀다.

## 노동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5·16이후 공화당정권의 소위 경제개발계획은 외국차관의 분별없는 무제한 도입과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적 성장의 전시효과에 의한 근본적으로 오산된 경제정책의 소산이었으며 국민경제의 대외종속화는 대내부실화사태를 은폐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서글픈 사태발전 속에서 현정권은 대외종속의 독점재벌의 노동압박을 비호하는 저임금정책으로 국민경제건설의 주역인 노동자들을 경제계획에서 도외시키고 그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복지를 완전히 외면하 특권경제의 부정부패를 완성화시켜버렸다. 높은 물가와 과중한 세액에 상응한 임금이나 노동생산성증대에 비례한 혜택을 고사하고 최저한의 생활급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였다.

더 이상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각에서 자위수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단점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기업주들과 근본적으로 오도된 경제정책은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1969년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대한 노동쟁의 임시조치법이 그것이며 1970년의 평화시장의 전태일분사사건, 1971년의 영등포 한영섬유 김진수 사건, 부평 신진자동차노조 봉쇄조작극 등이 노동자의 생존권의 위협임을 뚜렷이 말해주고 있다.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역사의 현실적 교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로부터 베풀어지는 것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엄연히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 밑으로부터의 획득운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 스스로의 각성에 의한 조직적이고 단결된 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생존권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이여 일치단결하여 스스로의 생존권을 사수하라.



## 장례위원 명단

위원장 : 한종훈

총 무 : 조승혁

위 원 : 김경락 김정홍 김진원 나상근 박형규 박은양 박경서  
백용기 신인현 안광수 안재웅 오명걸 이화수 조지송  
조화순 김용욱 고성민 장은수 한철하 한익하

## 집행위원

위 원 장 : 인명진

부위원장 : 나상기 서상두 윤조덕 원정연 한영숙 허순선

총무부장 : 황주석 차장 : 장인순 차옥승

의전부장 : 송천복 차장 : 홍남선 박동일

기획부장 : 김석준 차장 : 신혜수 최영희

섭외부장 : 이광일 차장 : 이미경 이호숙

위 원 : 강공례 김차열 김명천 김 준 김성동 김은중 김화근  
김영애 김용립 김용희 김광배 김혜숙 김동완 김흥기  
김태신 김복지 나달운 남중학 남기영 박현숙 박희옥  
박상희 박승규 박주환 배선경 배서옥 신철영 손희자  
신숙경 이정배 이해묵 이성희 이혜숙 이동희 이규대  
이정희 이혜철 임신영 임종근 오정옥 오승렬 유출락  
윤태현 양국주 장하진 정명기 정연찬 정병길 정일국  
추요한 최영애 최인황 황우연 홍성혜 홍길복 백성례

호 상 : 조지송 윤조덕

## 진술서

이 사실은 1월 5일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모든 사실을 본인 홍진기와 최홍인의 사실 그대로의 진상임을 먼저 법정 앞에 거짓이 없음을 맹세합니다.

먼저 정진현군이 한영섬유에 들어 온 동기부터 진술합니다. 70년도 12월달에 해고를 당했을 당시 저희들은 공장측에 여러차례 재직을 사정했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영섬유 노조문제로 인하여 휴업이 되자 최홍인의 도움으로 71년 1월 5일자로 공장장을 셋이 만나 노조 결성을 반대하기로 하고 일을 수습하기로 하고 1월 8일자로 진현 군이 재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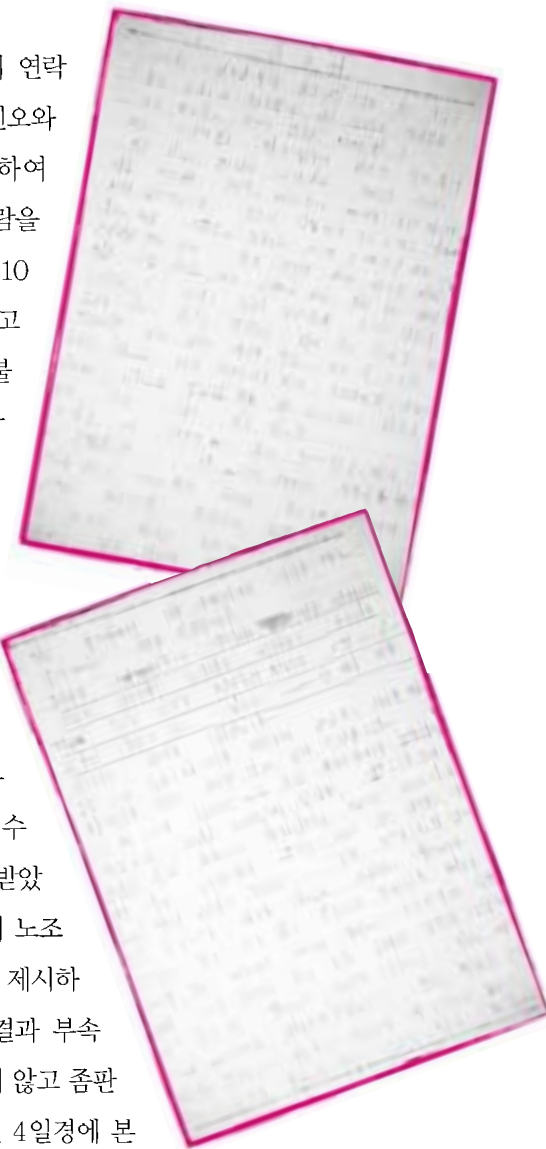
그 다음날부터 홍진기, 최홍인, 정진현은 공장장 말씀이 노조로 인하여 휴업이 되었으니 다시 일을 하게끔 해달라는 진정서를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6일 낮 11시쯤 최용인 집에서 배당 김명덕씨를 만나 공장장이 준 진정서 용지와 교통비와 점심값으로 일금 3,000원을 최홍인에게 전해 주었음을 진술합니다.

7일날 다시 김명덕씨로부터 5,000원을 받아 분배하였습니다. 약 40명 정도의 진술서를 받아 공장장한테 넘겨줌과 동시에 우리들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까봐 공장장과 의논했더니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질테니 염려말고 공장장이 일을 하라고 할 때까지 일을 하지 말고 수위실에서 일을 수습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위실에서 행동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대 파출소에 연락하여 대방동 깡패리는 진오와 창수라는 두사람을 채용하여 쉼타를 짜지도 못하는 사람을 편직부의 명칭으로 1월 10일, 11일 2틀간 출근케 하고 일인당 12,000원씩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후 다시 노조 탈퇴서를 받으라는 공장장의 지시를 받고 탈퇴서를 받자 공장장한테 넘겨 주었습니다.

1월 13일 김명덕씨로부터 해사실에서 그 동안의 수고비로 1인당 5천원씩 받았음. 그후 다시 공장장한테 노조에서 탈퇴안한자 명단을 제시하라는 말을 듣고 보고한 결과 부속을 짜고 있는 사람을 주지 않고 좁판 배당을 주었음. 그후 3월 4일경에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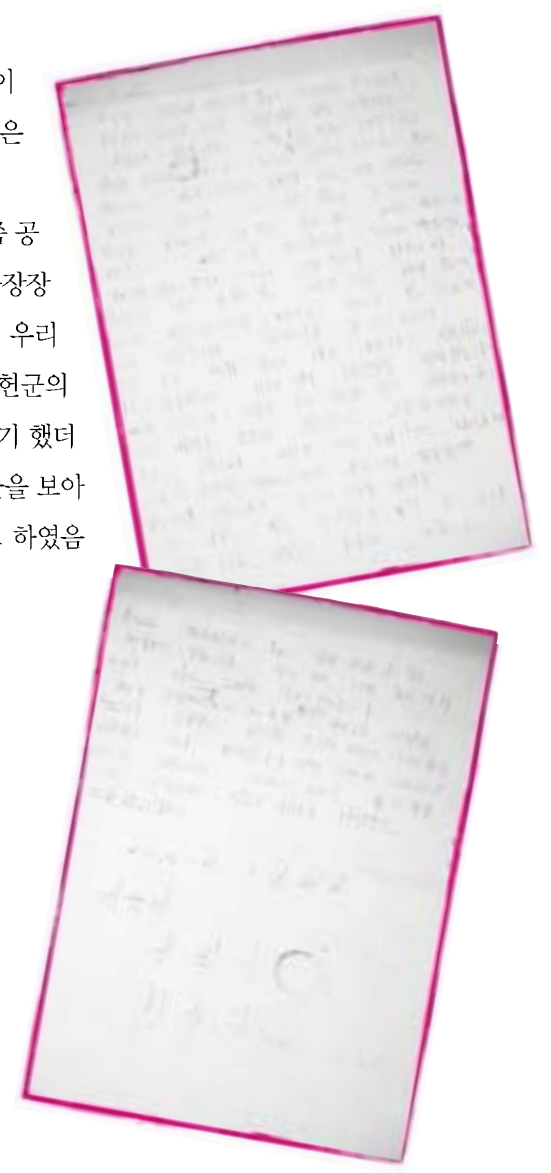
인 흥진기가 출근을 하는데 공장장이 불러서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은 김윤기나 함성길을 먼저 시비를 걸어 싸우라는 지시와 동시에 그 사람들과 싸움이 붙으면 노조문제로 해고당한 고석민, 김용욱, 이장원, 장은수씨가 틀림없이 쫓아와 시비를 걸테니 같이 싸워서 맞거나 때리거나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공장장이 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리하게 되면 멀리 휴가를 보내준다는 지시를 받고 3층에 올라와 최홍인과 정진현을 불러 해사실을 올라가서 공장장이 이러한 지시를 하더라는 말을 전한 것이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당을 쳐주지 않기에 배당 김명덕씨한테 문의했더니 자꾸 미루워 오던중 다시 노조 문제로 시끄러워 지니까 다시 셋을 불러 4일간의 일당을 천원씩 쳐 준다는 말을 듣고 2월 봉급으로 받았음. 2월 13일 노조측에서 또다시 탈퇴한 편직공들로부터 다시 가입원서를 김윤기와 함성길이 받는 사실을 알고 저희 둘이 사무실 측에 알린바 박서무님께서 너희들이 싸워서 같이 해고가 되면 노조측에서 계획적인 것으로 아니까 너희들이 직접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신임할 수 있는 다른 애들한테 이런 말을 전한 것을 진술합니다.

18일 10시경 공장장 출두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 가니 공장장 말씀이 노조에 가담 안해도 가담한만큼의 혜택을 줄테니 애들을 설득 포섭하라는 지시를 받고 셋이서 공장 밖 가게에 가서 소주 2병 포도주 1병 막걸리 1되를 먹으면서 셋이서 의논하던중 김진수라는 사람이 말을 잘 안듣는것 같터 셋이 가서 설득하기로 하고 공장으로 돌아와 3층으로 올라와 정진현이가 불러 말을 하던 중 일을 저질은것 같음

니다. 우리 둘은 그때 술이 만취되어 싸우는 그 순간은 잘모르겠습니다.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공장으로 전화를 했더니 공장장이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우리 둘이 사무실에 가서 정진현군의 사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했더니 치료비 문제는 우리 둘을 보아서 해줄테니 염려 마라고 하였음을 진술합니다.

1971년 3월 26일  
진술인 흥진기  
최홍인



## 각서

성명 유해풍

상기 본인은 흥진기, 최홍인의 진술서에 대하여 차후에 신변에 어떠한 지장을 가져올 시에는 힘이 최대한 있는 데까지 보장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1971. 1. 5

유해풍

